
第124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教育委員會會議錄 第4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1年2月19日(月) 午後2時

場所 文化教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2001年度서울特別市立大學校所管業務報告

審査된案件

1. 2001年度서울特別市立大學校所管業務報告 ... 1面

(14時 11分 開議)

○委員長 劉俊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地方自治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위원 여러분, 대동강이 풀린다는 우수가 지나더니 날씨가
한결 포근해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
회 소관 부서의 2001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1年度서울特別市立大學校所管業務報告

○委員長 劉俊相; 의사일정 제1항 2001年度 서울特別市立大
學校 所管 業務報告의 件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李棟 總長께서 2001년도 업무보고에 따른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總長 李棟; 존경하는 劉俊相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항상 우리 대학교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동안 저희 대학교에서는 총장 이하 모든 교수, 직원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여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괄목할 만한 학교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학교를 대표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교수, 직원 모두가 힘을 합쳐 학교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일자로 보직이 변경된 교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企劃發展處長 崔鏞善 교수는 현재 당초 계획대로 미국 세무학회에 참석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經商大學長 李根植 교수 역시 현재 학생 인솔하여서 중국 출장중입니다.

오늘 참석치 못한 사람들은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회의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교수입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저희 대학교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학금의 규모를 작년보다 5억 1,0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그 동안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학생 관련 민원을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One Stop Service Center를 운영하여 학생들의 편리를 도모할 계획이며, 방학기간을 이용 학생 200명을 엄선하여 어학연수 겸 해외 견문토록 하여 세계화 시대에 적응토록 하고자 합니다.

둘째,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신축중인 21세기관을 상반기중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2학기부터 연구실 및 강의실 등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예산에 배려해 주신 환경디자인관 신축은 9월까지 설계를 마치고 금년중 착공 예정이며 실험실습 기자재와 첨단장비 구입에 32억원을 투입하고 도서관 장서 구입에 11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학생들의 교육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대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고급인재 양성의 기틀 마련을 위하여 정보분야 신소재분야 서울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분야 등에 대한 학생 정원 증원을 추진하고 또 대학의 학문 분야별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2001학년 학문 분야별 평가에 대비하며, 현재 수립중인 중기발전계획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국립대학 발전계획과 연계 분석하여 우리 대학교의 실정에 맞는 방향으로 보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대학의 정보화 효율화를 위하여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과 멀티미디어 정보화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도서관의 해외학술 DB 등을 전문 서비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대학의 홍보와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영문 대학 안내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언론매체를 통한 대학 알리기를 적극 추진하고 나아가 국내외 대학교와 학술 교류 및 각종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여섯째,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교수 8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3명 교수의 증원을 추진하여 현재 64.7%인 교수 정원을 68%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며, 금년부터 신입생은 상·하반기별로 2회의 수시 모집과 1회의 정시모집으로 선발하고 서울시민자녀 특별전형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일곱째,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내외 학술연구비 우수학술지 논문 게재비 등에 예산을 증액하고 연구 보조인력을 증원하는 등 교수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며 또한 연구실적 및 강의평가 등을 통하여 우수교수를 선발 포함함으로써 연구하는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민생활 향상과 서울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민대학 및 사회복지관과 서울학연구소 운영을 내실화 활성화하고 작년에 개설한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 지진·방재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서울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와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의 운영을 통해 대학이 지역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대학의 200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발전처장이 학회 참석중인 관계로 교무처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李棟 總長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李棟 總長님은 자리를 이석하시고 세부사항은 安斗淳 敎務處長이 업무보고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委員 있음)

○敎務處長 安斗淳; 敎務處長 安斗淳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市立大學校 業務業務計劃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장황한 설명을 하지 말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핵심적인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判吉委員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判吉 委員; 金判吉委員입니다.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는데 시립대학이 현재 600억이라는 예산을 1년간 쓰면서 400억 이상을 서울시비를 보조를 받고 나머지는 학생들 등록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시립대학이 서울시에 기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서울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어떤 면에서 어떻게 기여하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들어 보니까 약간 냄새는 풍겼습시다만 구체적으로 기여하는, 400억을 갖다 쓰는데 서울시에 기여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확실히 설명을 해 보세요.

지난번 회기 때 답변을 누가 하셨죠? 그때 총장님이 답변 하셨습니까?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저는 기획발전부처장입니다. 기획발전처장이 학회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참석을 하지 못 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립대학이 서울시로부터 한 400억 정도의 많은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도 서울시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기여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민대학의 운영을 통해서 서울시민들에 대해서 평생교육 차원에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연구성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널리 알리고 또 시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소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소하고 지진·방재연구소 그 다음 서울학연구소 등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서울시 행정에 기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연구물들이 필요한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부터 교내 학술연구조성비를 지원하는 방법

을 개선해서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서울시에 대해서 일정한 연구 가능분야를 제시를 하고 서울시 해당분야에서 그 분야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선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야를 특별히 선정을 해서 연구비 지원을 통해서 결과물들이 서울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저희 학교에서 하나 맡아서 현재 아주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후로도 계속 서울시 그리고 시민생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분야나 또는 연구 필요한 분야 이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서울시 행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金判吉 委員; 작년 회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정도를 가지고 1년에 420억인가를 갖다 쓰는 명분은 부족하고 확실히 타 대학과 관계 없이, 지금 연구소 이야기를 하셨는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얼마든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대학에도 마찬가지로 연구비를 지불하면 다 연구를 해 줘요.

지진 방재관계도 그때 질문을 했었는데 그것을 보자고 하니까 자료를 보냈는데 아주 미미한, 기구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실제 연구한 실적이 있습니까?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작년초에.....

○金判吉 委員; 실제 연구를 해서 우리 나라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지진 방재를 하는가 그런 것이 나와 있어요, 지역별로?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연구소가 작년 2월 개설해서.....

○金判吉 委員; 조직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지금 현재 연구용역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결과물은 곧 나올 것으로.....

○金判吉 委員; 용역은 어디서 받았어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서울시에서 받은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교내 연구비 등을 통해서 연구과제를 개발해서 연구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서울시에서 받은 지진 방재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받았습니까?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제가 자료를 받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 당면과제 중에서 7개를 받았는데 5개 과제를 완료하고 2개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결과로 일단 주요 재난재해 사례 정보를 3,000여 건을 수집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 화생방 방어체제 구축 전략방안 모색, 지하공동구 설계기준 개발 및 안전관리대책, 21세기 서울시 지진재해 대응전략 모색, 서울시 시민안전체험관 건립 입찰안내서,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방안 이와 같은 것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주요 재난재해 사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향후 대두될 수 있는 터널형 공간구조 화재대책 방안에 관한 세미나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지금 연구소는 어떤 것을 연구하고 계세요, 서울시정에 관련된 연구?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지진 방재 말씀입니까?

○金判吉 委員; 다른 거요. 연구소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서울학연구소는 서울시의 역사라든지 또는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는 서울시의 반부패지수라든지 또는 기업의 반부패지수 이와 같은 측정모델을 개발하고 서울시 오픈행정시스템에 관해서 이론적인 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연구소는 법률상담실 등을 운영해서 시민들의 상담에 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문과학연구소 같은 것들은 인문학 연구에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연구소 산하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그리고 중소기업기술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벤처기업의 창업이라든지 또는 애로기술 지원, 경영이라든지 법률에 관한 자문 이와 같은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시민대학은 지금 5개 분야에서 한다고 그러셨죠?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네.

○金判吉 委員; 5개 분야예요, 분야?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설치된 장소가 5개라는 뜻입니다.

○金判吉 委員; 분야라는 말이 안 맞네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을지로, 본교, 강북, 강동.....

○金判吉 委員; 5개소라고 해야지 왜 분야라고 했어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아마 인쇄를 잘못된 것 같습니다.

○金判吉 委員; 5개 분야 설명해 보세요.

○敎務處長 安斗淳; 양해해 주신다면 시민대학 학장이 나와 계시니까 시민대학 학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判吉 委員; 네, 그러세요.

○市民大學長 崔良秀; 서울시민대학을 맡고 있는 崔良秀 교수입니다.

지금 金委員님께서 질문하신 시민대학에서 운영하는 교육 내용은 5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학분야 그리고 자치시민분야 그리고 문화교육분야, 전문분야 그리고 자격증 분야라고 해서 새로 정보화 관련된 전문 문화 시대에 보조를 맞춰서 이번에 2001년도 제9기 수강생부터 새로이 설강된 강좌입니다.

그래서 5개 분야를 저희들 시민대학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그러면 예산이 지금 13억 9,000만원이라고 그랬죠?

○市民大學長 崔良秀; 네.

○金判吉 委員;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市民大學長 崔良秀; 작년도 예산도 거기에 비슷한 액수로 알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정확히 이야기해 보세요.

○市民大學長 崔良秀; 작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金判吉 委員; 증액이 안 됐어요?

○市民大學長 崔良秀; 약간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13억 9,000여 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작년에는 얼마인지 모르고요?

○市民大學長 崔良秀; 네.

○金判吉 委員; 그러면 희망하는 수강생은 전부다 수용을 하고 있습니까?

○市民大學長 崔良秀; 이번에 저희들이 제9기 수강생을 모집

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3월 5일 개강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지난 2월 8일 을지로 분교를 중심으로 해서 직장인을 상대로 한 야간반의 인터넷 접수를 한번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그 동안에 시민들이 왜 정보화시대에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처음 시도를 해 봤는데 저희들 전산용량이 모자라서 기술적 검토를 못 했습니다만 당일날 한번에 접속이 밀려오는 바람에 과부하가 생겨서 인터넷 접속은 한 50%에 그치고 나머지는 2,3일 뒤에 안내문을 통해서 별도의 현장 접수를 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민원은 소화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金判吉 委員; 90% 이상 소화를 한다 그 말이죠?

○市民大學長 崔良秀; 네.

○金判吉 委員; 그러면 지금 5개 분야 중에서 어느 분야가 제일 많습니까?

○市民大學長 崔良秀; 원래 서울학분야하고 자치시민분야는 무료강좌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무료강좌로 하다 보니까 수강하는 시민들 자체에 문제도 약간 있는 것 같고, 저희들 판단도 그렇습니다만 문화교양분야하고 전문분야 특히 외부강좌를 비롯한 컴퓨터강좌 같은 것은 3만원 내지 5만원에 실비 정도 수강료를 받고 유료화시켰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예상한 대로 돈을 받으면 수강생들이 줄어들거라고 예상한 것이 빗나가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교재대 비슷한 수강료를 받는 것이 나중에 수료율도 높아지고 여러 가지 교육효과를 보는 데 받침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수강료로 해서 종래에 97년 이후에 한 3년 동안 시 일반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던 것이 유료강좌 개설이 되므

로 해서 1년에 지금 한 1억 5,000여 만원의 세수를 보았습니다.

○金判吉 委員; 13억 9,000만원을 쓰고 1억 5,000만원을 벌어들였군요.

○市民大學長 崔良秀 결과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金判吉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개요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관 관장을 맡고 있는 金蓮玉 교수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金判吉 委員; 서울시 계획에 따라 각 대학에서 지역사회복지관을 운영한다고 그랬어요. 그 현황을 설명해 보세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저희 기관이 4년 전에 개관한 이후로 지금 현재 5개 분야에서 각 단위별 사업은 총 80여 개 단위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은.....

○金判吉 委員;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각 대학에서 지역사회복지관 운영 그랬는데 지역사회복지관이 지금 어떤 복지관을 운영하느냐 그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세우는 복지관을 운영하는가.....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서울시에서 저희 대학에 위탁한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어디 어디예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저희는 한 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내동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金判吉 委員; 알겠습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난 회기에도 본위원이 말했지만 전체의 80% 되는 예산을 서울시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대학교로서 적어도 서울시에 무엇을 기여한다는 것을 확실히, 시민생활 향상과 서울시정에 기여한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 가지 나열해 봤는데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적어도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400억이 넘는 서울시 예산을 보조금을 쓰는데 서울시민과 서울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다음 회기에는 와서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敎務處長 安斗淳; 네,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감사합니다. 20분 정확히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劉大運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劉大運 委員; 劉大運委員입니다.

자료를 보면 시민대학교 하나 증설 예정으로 올라와 있네요? 지금 하나를 증설로 넣고 심의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목적이 있는 곳에 하나를 더 증설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市民大學長 崔良秀; 시민대학 학장입니다.

저희들 97년 이후에 본교 을지로 분교를 비롯해서 현재 5개 분교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자료에 나타난 분교 1개소 추가 설치하는 이번 2001년도 연말에 개관이 돼서 2002년도에 개관되는 관악구 문화관에 저희들 시민대학이 기존에 강동 자치구와 협력관계로 되어 있는 분교 형태로 관악구에 자치구 단위로 두 번째의 분교가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劉大運 委員;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 계시죠?

○事務處長 朴龍來; 事務處長 朴龍來입니다.

○劉大運 委員; 그 동안에 21세기관이 금년 9월이면 완공되죠?

○事務處長 朴龍來; 그렇습니다.

○劉大運 委員; 금년 9월이면 완공이 되고 현재 78%에서 내부 마감하고 설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죽 시립대학교의 시설 확충을 주도했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불투명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는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3·4년 전에도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기존에 21세기관이 총 사업비가 198억 1,7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입찰을 예를 들어서 73% 했다. 그런데 기존 건물 보수기준 산정에 있어서 2가지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73%의 설계가를 해서 기존 입찰 본 업체에게 계약을 이행하는, 액수의 과다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기존 설계가에 물가 품셈조사에서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큰 외형만 73%에 맞춰서 계약을 기존 회사에, 사업명이 전혀 다릅니다. A라는 회사에서 73%의 21세기관을 신축을 하고 있다면 기존 건물 보수는 이 A라는 회사에 전문성이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공개입찰을 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편의를 목적으로 73%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 이렇게 답변하실지 몰라도 품셈조사가 ABC에서 A급을 적용했다면 그 계약단가는 90%에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이제 시립대학교가 많은 학생들 많은 교

수님들 연구하고 이런데 계획 없이 공사를 발주해서 학업에 또 교수님들 연구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는, 그래서 사무처와 교수진간에 왕왕 마찰 아닌 마찰을 빚는 이런 현상들은 사전 준비부족으로 인한 결과의 소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의 시정을 위해서 금년에도 지금 준비하는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기존 시설물 보수공사에서 두 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 보수공사 해서 3억 5,000만원으로 금년도 5월에서 9월까지 마감한다고 나와 있고 또 같은 내용입니다만 기계·전기시설 유지보수 공사 해서 6억 5,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좀더 시설과에서의 모든 자료가 사무처장과 총장한테 결재 올라갈 때는 사무처장이 보다 더 섬세하게, 아마 해당 사무처장께서 전문가는 아닐 것입니다.

전문가는 아닐지라도 수십년간 공직에 있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 전에 결재했던 과정을 한번, 지금 사무처장께서 시립대학교에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1년 됐습니다.

○劉大運 委員; 1년 되셨으면 한번의 예산은 집행한 경험이 있으시겠구만요.

○事務處長 朴龍來; 그런데 첫 번째 문제로 지적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파악을 못 한다고요?

○事務處長 朴龍來; 73%, 90%…….

○劉大運 委員; 아,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파악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다만, 그 동안에 공사 발주를 함에 있어서 그것을 비율로 산정을 해서 해당업체에 수의계약형식을 띤 것이 일면은 합법적이라고 위장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보면 불법이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73%에 21세기관이 조달청으로 하여금 입찰을 했다면 또는 공개경쟁입찰을 도입했다면 그 도면에 적시된 지방서와 품셈조사 그리고 정부 일위대가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같은 73%일지라도.

다시 말씀드리면, 3,4억짜리 공사를 발주하면서 73%에 맞췄다 하더라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기존 21세기관이 73%였다면 총 공사금액에서 들여다보면 이것은 90% 내지 100% 육박하게끔 발주하는 사실이 왕왕 있다 이런 얘기에요.

만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업무가 파악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못 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동안에 있었던 3년치를 소급해서 설계도면과 계약내용을 우리가 조사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 답변을 통해서 이것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면 그것으로서 몇 개월간 지켜보겠다는 얘기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알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법에 맞게 계약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조그마한 것 가지고 큰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될 시립대학교가 구설수에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이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립대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일반직을 제외한 나머지 교수 전문직들은 타 대학보다 어떤 면에서 경제적으로 불이익 받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토털로 나오면 시립대학교의 같은 피해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법률상으로 문제가 있었던 점이 발각된다면 심사숙고해서 하겠다 이 말도 잘못된 말이에요.

그 동안에 1년 이상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결재권자인 사무처장이 그 정도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부터 가서라도 한번 면밀하게 결재가 다 끝나서 공사가 전부 다 집행된 것이라 할지라도 한번 재검토를 해 보세요.

○事務處長 朴龍來; 알겠습니다.

○劉大運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朴柱雄委員님 질의하세요.

○朴柱雄 委員; 사무처장님 나오세요. 朴柱雄委員입니다.

○事務處長 朴龍來; 사무처장입니다.

○朴柱雄 委員; 劉大運委員께서도 지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21세기관하고 환경디자인관 신축 그것 조달청에서 입찰해 온 것입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21세기관 공사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한 것이고 환경디자인관은 아직 발주를 안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朴柱雄 委員; 그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것도 6월에서 9월 사이에 하겠다는 얘기죠?

○劉大運 委員; 朴柱雄委員님 잠깐 1분만요. 죄송합니다.

사무처장 말이죠, 지금 환경디자인관 신축은 조달청 의뢰사항이 아닌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21세기관은 계약한도 금액이 몇백 억이 되니까 가능하지만 여기는 95억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것을 판단 않고 무조건 답변하시면 어떡합니까?

나중에 해당이 안 돼서 안 됐을 때 朴柱雄委員이 재추궁하면 그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하나에서 둘까지 생각하고 답변을 하셔야 돼요.

물론 100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조달청에 굳이 의뢰하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조달청이 무조건 투명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 낭비요, 조달비만 내는 그런 양상도 동시에 띠는 것입니다.

답변을 심사숙고해서 朴柱雄委員 질의에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事務處長 朴龍來; 환경디자인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 내부계획을 확정해 놓았습니다.

그 안에 보면, 올 10월 1일에 공사 발주를 조달청에 계약 의뢰를 할 예정입니다.

○朴柱雄 委員; 알았어요.

그리고 뒤에 기존 시설물 보수 또 기계·전기시설 유지보수, 실험실습실·시청각 기자재 확충 이것 전부 여기 명시된 대로 그때 그때 실행하겠다는 것이죠?

○事務處長 朴龍來; 네, 그렇습니다.

○朴柱雄 委員; 아직 실행한 것이 아니지요?

○事務處長 朴龍來; 네, 안 했습니다.

○朴柱雄 委員; 그러면 우선 서울21세기관 신축은 조달청에서 공사가 78%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이 서류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사항은 아직 준비단계에 있으니까 나중에 문기로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페이지에 보면 학생 해외견문 지원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십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그것은 학생처 소관으로 학생처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學生處長 李宇泰; 學生處長 李宇泰입니다.

○朴柱雄 委員; 학생 해외견문 지원에 있어서 국제화 시대에 맞춰 해외견문 여행을 통한 지도자적 자질 함양을 위해서 약 2억 예산을 들여서 200명 단위로, 이것이 전년도 실적입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아닙니다. 올해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없던 사업을 올해 새로 마련했습니다.

○朴柱雄 委員; 2000년도에는 실시 안 했어요?

○學生處長 李宇泰; 그렇습니다.

○朴柱雄 委員; 처음 하는 것입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그렇습니다.

○朴柱雄 委員; 어째 이런 것을 이제서 생각해서 합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그 이전부터 타 사립대학교에서는 금강산에 관광한다든지 또는 해외 어학연수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그런 필요성은 일찍부터 절감해 오고 있었습니다만 학생 선발의 평형성이라든지 또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성회계에서 약 2억원의 예산을 특별히 배정해서 이 사업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사업은 계속 확장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朴柱雄 委員; 교수가 되었던 학생이 되었던 해외견문을 넓혀야 됩니다.

이게 예산도 크게 들어가지 않는데 사립대학에서 타 대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실시한 것을 이제야 했다는 것은 좀 뒤떨어진 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學生處長 李宇泰; 감사합니다.

○朴柱雄 委員;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등록금책정문제가 있습니다.

○事務處長 朴龍來; 사무처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柱雄 委員; 신입생이 5% 이내입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그렇습니다.

○朴柱雄 委員; 재학생은 계열별 2 내지 4% 인상, 신입생, 재학생 학부의 110%, 대학원 학부의 110% 라는 것이 무슨 얘기에요?

○事務處長 朴龍來; 학부의 110% 라는 표기는 조금 오해를 하시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영대학의 대학원은 경영대학등록금의 총액의 110%, 그런 뜻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기를 했느냐 하면, 대학과대학원의 차별성 관계 때문에 그렇게 표

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10%를 인상했다는 뜻이 아니고 학부의 총액 기준해서 110%를 내게끔 고지를 한다, 그런 뜻입니다.

○朴柱雄 委員; 그러면 10% 인상이라는 뜻입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학부 인상률의 110%이기 때문에 만약 학부가 10%를 작년부터 인상을 했다면 대학원 인상된 폭은 10%를 넘게 됩니다.

왜냐 하면 학부의 절대액의 110%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겠습니다.

○朴柱雄 委員; 특수대학원도 마찬가지로요?

○事務處長 朴龍來; 네, 그렇습니다.

○朴柱雄 委員; 이것이 좀 의아스러워서,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朴柱雄 委員; 사무처장님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21세기 관.

○事務處長 朴龍來;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다음은 李東秦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李東秦 委員; 李東秦委員입니다.

보고자료에는 없습시다만 일반현황으로서 작년 시립대 졸업생, 올해 졸업생, 올 졸업예정자를 포함해서 취업률이 대체로 어느 정도 되나요?

○事務處長 朴龍來; 學生處長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學生處長 李宇泰; 學生處長 李宇泰입니다.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서 올해 졸업생들의 취업률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아직 취업이 확정되지 않은 학생들과 또 진학과 취업 중에서 망설이고 있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고, 2000년 2

월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총 1,299명이 졸업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취업대상자는 1,256명이었습니다. 그중 866명이 취업하여서 취업률은 68.9%였습니다.

○李東秦 委員; 취업자가 얼마라고요?

○學生處長 李宇泰; 취업자가 866명이었습니다.

○李東秦 委員; 여기에 군대 가거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이런 아이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실취업자를 말씀을 해 보세요, 실제취업자.

○學生處長 李宇泰; 취업대상자 가운데서 취업을 포기했다거나 하는 학생들은 제외를 했습니다만 자세한 자료는 단과대 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다면 저희가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자료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취업난 때문에 대학졸업자들, 기존의 졸업자뿐만 아니라 졸업예정자까지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학당국에서 취업현황조차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될 사항 아니에요?

○學生處長 李宇泰; 취업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學生處長 李宇泰; 전체적으로 보면 68.9% 입니다만 단과대학별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단과대학별로 지금 제가 답변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학원 진학자나 군대, 졸업자, 질병을 갖고 있어서 부득이 취업을 못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을 제외하고 실제로 취업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대상들이 얼마이고, 실제 취업한 아이들이 얼마이고, 이런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취업에 대해서 대학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분야인데 그런 통계조차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學生處長 李宇泰; 졸업생들 가운데서 취업을 희망하면서 전혀 취업을 못한 학생들은 저희가 엄격하게 파악하기로는 32.1%의 학생으로서 약 400명이 좀 넘는 숫자가 취업을 희망하면서도 취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이 비율은 다른 대학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대학별로 다 차이가 있겠지만 시립대학교의 취업률과 다른 대학의 취업률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전국적인 규모로 본다면 전국적인 취업률은.....

○李東秦 委員; 서울 소재.....

○學生處長 李宇泰; 서울 소재한 대학으로 본다면 타 대학에 비해서 특별히 높지 않습니다. 일반 다른 대학과 비슷한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취업과 관련해서 시립대이기 때문에 서울시와의 협조관계나 이런 것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요?

○學生處長 李宇泰; 과거에는 시비장학생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미리 장학금을 주고 7급 또는 8급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제도가 있었습시다만 그 제도가 91년에 감사원의 감사적발로 인해서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번에 조금 다른 제도로써 학생들에게 특별한 어떤 사항을 요구하는, 즉 지적을 공부하면서도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라는 서울시의 요청이 있으면 그런 학생들을 미리 교육을 시켜서 일정한 자격에 이른 다음에

취업시키는 맞춤형교육이라는 제도를 작년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약 40명의 인원을 요구받아서 거기에 요구하는 학생들에게 이수한 특별한 학점을 따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그 학생들이 취업하게 되는 것은 내년이나 후년이 되어야지 가
능할 줄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니까 공무원 채용에 있어서 시립대 출신을 우대하거나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은 형평의 원칙이나 이런 데 있어서 위배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히 공무원으로 취업하는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일반취업과정에서도 서울시와의 업무협조를 원활하게 해 나간다면 여러 가지 도움이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學生處長 李宇泰; 저희가 취업 알선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이루어지는, 또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국가시험에 대한 안내와 같은 행사를 주관한 적이 있고, 또 작년 5월과 12월에 걸쳐서 국가정보원과 행정자치부 그리고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서 이들의 취업설명회를 따로 유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일반대학도 마찬가지로 기업의 취업설명회 같은 것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것은 어느 대학이나 하는 것이고요.

취업문제와 관련해서 대학 당국에서 보다 더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대학에서 다 하는 일반적인 이런 것이 아니고 시립대학교의 특성에 맞는 취업 전략을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떤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어느 직종에 어느 정도

취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의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는데 그냥 현재 안존해서, 관행에 얽매여서 그렇게 해서는 결코 시립대가 더 나은 대학으로 발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비를 투자해서 이런 저런 시설과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시립대학교가 발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해서 사회 요소 요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시립대학교가 지금 해야 될 상당히 큰 중요한 임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어떤 전략이 있으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연구를 좀 하시고요. 적절한 시점에 제가 다시 업무보고나 다른 기회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學生處長 李宇泰; 감사합니다.

李委員님 질문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학생들 취업을 늘리기 위해서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다음에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총학생회가 있죠?

○學生處長 李宇泰;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작년에 총학생회에서, 주로 학내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학내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집회도 있고, 시위도 있을 수 있겠고, 다른 형태의 총학생회의 요구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말씀을 해 주세요.

○學生處長 李宇泰; 작년 한해 동안 학생들이 집회와 시위를 통해서 노력했던 가장 주된 골자는 등록금문제와 관련된 것

이었고, 두 번째는 학교의 운영과 행정에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43가지로 정리되어서 43개 요구안을 책자로 전달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 두 가지 나온 내용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복지문제라든지, 시설문제라든지 하는 것들의 개선하는 데 있어서 골자는 학생들이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넓혀 달라는 이른바 학내 민주화가 학생들 요구의 주종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기성회비문제는 내용에 없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기성회비는 작년도의 경우에 재학생과 신입생을 차별화해서 재학생들보다 신입생들을 약 10% 더 인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인상요구에 대한 철회와 그 다음에 기성회비 인상액이 과도하다는 두 가지 점이 주로 논점이었습니다.

○李東秦 委員; 기성회비 운영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 요?

○學生處長 李宇泰; 기성회비 운영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저희 학교가 기성회비에 대한 회계내용이 공개가 되고, 또 기성회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의 실무회의와 기성회비이사회에 학생들의 대표가 직접 참여해서 발언하는 기회를 허용해 주는 까닭에 그 집행문제에 대해서는 별 다른 불만이 없었습니다.

○李東秦 委員;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외국국적 유학생 수학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상이 18명인데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1차적으로 외국유학생에 대한 수학보조

금의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그것은 인원이 늘었기 때문인데, 18명 가운데서 10명 정도는 특별히 몽골학생들을 중심으로 몽골과의 교역을 확대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8명 정도는 상호호혜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상대방의 나라의 가서 장학금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그런 나라의 학생들, 또 상대방 학교의 학생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이 8명 정도가 됩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니까 상호…….

○學生處長 李宇泰; 호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李東秦 委員; 호혜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요지도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죠?

○學生處長 李宇泰;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몽골부분에서는 특별히 많이 선정해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이죠?

○學生處長 李宇泰; 이것은 학교의 방침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대부분 일본 같은 데서도 우리 나라의 유학생보다는 필리핀이나 중국의 유학생들, 또 몽고의 유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중국이라든지 또는 일본, 미국과 같은 곳에서는 다른 기관에서도,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몽골과 자매결연을 맺은 바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신을 살려서 특성화함으로 인해서 몽골의 교역창고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몽골학을 연구하는 중심기관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전략적인 뒷받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각 국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학생들이 가서 유학하고 있는 도시의 대학 학생들이 받는 수학보조금이 우리가 주는 보조금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저희 학생들이 외국에 나가서 수학보조금을 받고 있는 나라는 주로 일본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요코하마대학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면제받고 월 8만엔 정도의 장학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나라 돈으로 따질 경우에 약 120만원 정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동경학예대학이나 히로시마대학도 비슷한 정도의 수준입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몽골을 제외하고는 어느 국가예요?

○學生處長 李宇泰; 주로 일본이 그 대상 국가가 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것을 숫자는 예산이 어차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에서 할 수밖에 없지만 동일한 숫자라 하더라도 다양화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국가별로 우리도 다양하게 가고 또 상호 이해관계가 맞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을 한번 기울여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學生處長 李宇泰; 소수이기는 합시다만 중국 학생에게도 1명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조금더 다양한 나라와 혜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관 관장님이신가요? 잠깐 나오시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사회복지관 관장입니다.

○李東秦 委員; 시립대학교 내에 사회복지 관련학과가 몇 개가 있습니까?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사회복지학과의 있습니다.
- 李東秦 委員; 관련학과의 사회복지학과 하나입니까?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네.
- 李東秦 委員; 지금 시립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네.
- 李東秦 委員; 지금 사회복지관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서 복지관이 설립이 되고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사회복지관운영지침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 제가 이번 2월 1일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 李東秦 委員;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관을 저는 가능하면 한 개 정도가 아니라 더 운영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지금 대학교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법인의 정관에 사회복지사업을 주 업무의 하나로 정관에 나와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적법한 절차와 적법한 형태로 위탁을 맡아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확인을 해 주시고요.
- 지금 학생들이 실제로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봉사활동보다는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실습 현장으로서 더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李東秦 委員; 작년에 서울시내 사회복지관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평가결과가 어땠습니까?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좋지 않았습니다.
- 李東秦 委員; 어느 정도 나왔어요?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5단계로 생각했을 때 말단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아래 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李東秦 委員;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제가 나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李東秦 委員; 우선 위탁을 언제 맡으셨어요?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4년 전이니깐 96년이 되나요?
- 李東秦 委員; 평가를 좋지 않게 받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저희가 우선 프로그램이 물질적인, 구체적인 서비스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깐 작년 평가에서 어떤 서비스의 전문화가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점수가 낮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전산 정보화 작업이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李東秦 委員; 관장님께서 실제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네.
- 李東秦 委員; 평가결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치 제삼자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책임이 있으신 것 아니에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들렀다면 죄송합니다.

○李東秦 委員; 위탁법인이 지금 시립대학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타 복지법인에서와 같이 운영주체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렇습니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네, 자유롭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하고 진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2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지금 계속 사업보고를 받고 진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李東秦 委員; 이번에 발령을 받으셨어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네, 2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니까 그 책임에 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아니오, 저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학과 교수로서.

○李東秦 委員; 상대적으로 법인으로부터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다는 측면, 그리고 인적자원에 있어서 상당히 풍부한 인적자원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여러 가지 조건에서 타 법인과 비교해 볼 때 좋은 여건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이 평가를 낮게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운영주체가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면서.....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그런 점도 있지만 만약에 변명을 하자면 저희가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동안은 외형적인.....

○李東秦 委員; 그것은 변명이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재작년에 개관한 데도 사회복지관 평가에 있어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데가 있어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공간적인 면에서나 그 위치상에서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앞으로 노력은 하겠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등급을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노력을 하십시오.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내년 평가를 기대하면서 내년에도 그런 좋지 않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면 굳이 시립대학교가 이 복지관을 운영할 이유가 없어요.

운영을 잘 하고 또 그렇게하기를 기대하면서 시립대학교에 주었을 텐데 타 법인에서 훨씬 더 운영을 잘 한다고 한다면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더 잘 한다고 한다면 왜 굳이 시립대학교가 이 복지관을 운영합니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그런데 그것은 서비스를 잘 한다는 것하고 평가항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듭니다.

○李東秦 委員; 물론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평가항목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자꾸 말꼬리를 잡으실 겁니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委員長 劉俊相; 李東秦委員님, 이 부분은 추가질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 여기에서 듣기에도 꼭 책임이 없는 것

처럼 들리는데 시간이 됐고 하니까 보충질의 때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버돼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趙養鎬委員님.

○趙養鎬 委員; 趙養鎬委員입니다.

이것이 누구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시립대학교에서 특색 있는 사건이 있었다면 뭘까요?

시립대학교의 자랑할 만한 거라든가 아니면 좀 숨기고 싶었던 일들?

○敎務處長 安斗淳; 趙養鎬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교무처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숨기고 싶다가보다도 그런 일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하는 사건이 하나 있다면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해서 학교 행정을 마비시켰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것 하나고 나머지는 없었고요?

○敎務處長 安斗淳; 어차피 많은 조직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조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원만하게 아무 차질 없이 다 진행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상에서 크게 벗어난 사건으로서는 아직 제 기억은 안 납니다.

○趙養鎬 委員; 시립대학교 학문의 풍토는 어떤 것입니까? 시립대학교는 이러한 특색을 갖고 있는 대학이다 얘기를 할 때?

○敎務處長 安斗淳; 제가 그것을 충분히 말씀드릴 입장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우리 교수들이 전부 생각하는 것은 첫째는 역시 대도시를 제일 중요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사학과는 달리 역시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로서 시

민에 봉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해서 고민하면서 연구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趙養鎬 委員; 교무처장님, 작년에 월간지나 또는 주간지 모든 언론매체에서 잡지 매체에서 가장 논쟁을 벌였고 또 서울시립대학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던 것이 국문학과에 이명원 씨 있죠?

서울대 김윤식 교수의 표절논문 때문에 잡지에서 월간지나 주간지에서 다루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학교측으로 봐서는 어떤 대책이라든가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없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그 부분은 학교 차원에서 논의하기 이전에 우선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수 차례에 걸쳐서 회동을 하고 또 학생들하고도 원활한 대화를 한 다음에 본부에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趙養鎬 委員; 어떻게 보고를 했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우선 학생하고 교수간에 분명히 대화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하고 그리고 서로간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지나간 과거사를 서로 반성을 하고 가능하다면 그 학생을 다시 복교시켜서 박사학위 과정을 밟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으로 대강 집약이 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면 대학본부측에서는 교수님들의 그러한 견해에 대해서 수공을 하시는 것입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그렇습니다. 본인하고 지도교수하고 대화가 잘 통해서 다시 복교를 해서.....

○趙養鎬 委員; 그 학생이 복교를 하겠어요?

지금 교무처장이시죠?

○敎務處長 安斗淳; 네.

○趙養鎬 委員; 제가 지금 몇 가지 월간지하고 주간지를 가져왔거든요. 이명원 씨 사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모든 월간지 주간지 다 추렸어요.

말지라든가 주간동아 이것이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도 계속해서 시사저널 또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교수와 대학원생간에 지금 대화의 부재라고 대화를 계속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문제가 아니고 이명원 씨라든가 또는 대학원생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국문학과는 물론이고 모든 서울시립대학교가 특정대학에 식민지화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학원생하고 또 교수간 사제지간이 비서 보좌역할에 국한되고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이명원 씨가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자퇴서도 말지에 실었고요. 그래서 복교한다는 것은 어렵고.

국문학과 교수분들이 지금 몇 분 계세요?

○敎務處長 安斗淳; 일곱 분 계십니다.

○趙養鎬 委員; 전부 어느 대학을 나오셨습니까? 자료 가지고 계시죠?

○敎務處長 安斗淳;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를 나오셨습니다.

○趙養鎬 委員; 전부 나오셨죠?

○敎務處長 安斗淳; 전부는 아닙니다.

○趙養鎬 委員; 아니, 자료를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금 뒤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세요. 서울시립대 국문학과 교수님들이 어느 대학들을 나오셨는가?

○敎務處長 安斗淳;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

교육과를 나오셨고 한 분은 서울대 법대를 나오셨고 그렇습니다.

○趙養鎬 委員; 국문학과 교수가 몇 분 계세요?

○敎務處長 安斗淳; 말씀드린 대로 제 기억으로 일곱 분이 계십니다.

○趙養鎬委員 일곱 분 있는데 왜 두 분만 얘기하세요?

○敎務處長 安斗淳; 말씀드린 대로 여섯 분이 서울사대 국어교육과를 나오셨고 한 분은 서울 법대를 나오셨습니다.

○趙養鎬 委員; 국문학과만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서울대학교 분들이 일곱 분이니까 100%네요.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근친간에도 결혼을 안 시키는 것이, 그 얘기까지는 안 하겠는데 학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선·후배들이 와서 어느 한 학과를 100% 평정하고 있다.

교수가 전체적으로 100% 한 학교로 되어 있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나 서울시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敎務處長 安斗淳; 옳으신 지적이고요.

말씀이 나왔으니까, 이미 작년도 9월 30일자로 敎育公務員任用令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의 취지는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대학 출신이 지나치게 편중된 교수진 구성을 하지 못 하도록 했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도 이번에 市立大學校敎員新規任用規程을 제정을 해서 모래, 그러니까 21일 교무위원회에서 일단 논의를 해서 법을 제정할 생각입니다.

○趙養鎬 委員; 어떻게 법을 제정하시려고 합니까, 내용이 뭐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말씀드린 대로 敎育公務員任用令 법 정신에 의해서 앞으로는 특정대학출신의 교수가 특정학과에 편중

되는 것을 방지할 생각입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그 법조문 가지고 계세요?

○敎務處長 安斗淳; 법조문 지금 우리가 기안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것 한번 쥬 보실래요?

○敎務處長 安斗淳;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趙養鎬 委員; 아니, 읽어보지 마시고.....

○敎務處長 安斗淳; 아니, 이것은 아직 아무 절차도 밟지 않고 단지 실무진에서 만들어 놓은 초안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것으로.....

○趙養鎬 委員; 초안이면 확정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내에서 일단 다단계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교무위원회에서 확정된 다음에 총장의 결재를 받으면 공포 시행합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실무진이 만든 내용을 읽어줄 수는 있어도..... 내용을 복사해서 달라니까요.

○敎務處長 安斗淳; 말씀드린 대로 21일이면 교무위원회에서 일단 1차 심의가 끝납니다. 그때 제가 복사를 해서 필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시립대학교에서 교수를 충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시립대학교에 국한되는 문제뿐만 아니라 이명원 씨의 사건으로 인해서 서울시립대학교 자체 학문의 풍토가 조금 자유롭지 못하다, 교수들의 전황이 심하다, 이런 얘기들이 모든 대학원생들, 대학교마다 전체적으로 다 언론매체들을 통해서 보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아까도 교무처장께 작년도에

가장 숨기고 싶었던 일들이 뭐냐, 저는 그런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敎務處長 安斗淳;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 문제는 숨기고 싶은 사항은 아닙니다.

○趙養鎬 委員; 자랑하고 싶은 얘기에요?

○敎務處長 安斗淳; 왜냐 하면 학문발전을 위해서 그런 논의가 자연스럽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趙養鎬 委員; 학문을 발전을 위해서 자연스러운 건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교에 있으면서 자유롭게 논쟁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안되기 때문에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애로사항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학생이 지금 언론매체를 통해서 주장하는 그것이 전부 진리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趙養鎬 委員; 아니, 진리가 아니고 지금 교무처장님하고 저하고 어떤 가치에 대해서 진리를 논쟁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대해서만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학생이 김윤식 교수가 논문을 표절했다, 그것을 기고하고 나서 학교에서 계속해서 공부할 수 없는 분위기,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자퇴를 할 때는 자기가 학교에서 계속해서 공부 또는 연구할 수 없는 분위기, 목직한 분위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지금 와서 취업을 하겠어요, 취직을 하겠어요?

그런데 박사과정에 있는 학생이 학교를 떠날 때는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학문의 풍토 그 속에서 견뎌낼 수 없었기 때문

에 학교를 자퇴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더 발전되고, 또 학문이 좀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는 기반이 뭐냐 하면, 어느 한 대학교 출신들이 전체적으로 100% 교수가 되면 거기에서는 학문간 또는 교수와 대학원생간의 토론이나 논쟁을 할 수가 없다니깐요.

선배고 전부 후배인데 거기에서 무슨 논쟁을 하겠어요. 거기에서 교수님들 말 잘 듣고 하면 시간강사도 주고, 또 전임강사도 줄 텐데.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것이 이명원 씨의 김윤식 교수 표절논문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다시 또 교수가 압력을 넣고,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립대학교 저변에 깔려 있는, 국어국문학과를 포함해서 모든 학과에 어느 한 대학교의 교수들이 100% 또는 90% 이상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립대학교가 자유로운 분위기가 아니다라고 비판을 받을 만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무처장께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죠?

○敎務處長 安斗淳; 서울시립대학교 출신 교수가 10%, 25명이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아니, 25명인데 서울시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250명입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면 250명의 출신대학,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敎務處長 安斗淳; 네, 자료가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자료를 지금이라도 주시죠.

○敎務處長 安斗淳; 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리고 서울시립대학교는 교수를 충원할 때 어떻게 충원하고 있습니까, 충원방법이요.

○敎務處長 安斗淳; 절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각 과에서 원하는 분야를 학교에 제출을 하면 학교에서는 그 분야의 타당성을 파악한 다음에 주어진 정원 범위 내에서 대개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학과에 배정을 합니다.

티오 한 명씩 대개 배정이 되면 신문공고를 냅니다. 신문공고를 내서 공개모집을 한 다음에 공개모집된 모든 응모서류는 해당학과로 전부 돌려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학과에서는 교수 전원이 모여서 응모 접수된 모든 서류, 특히 연구실적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심사를 해서 거기에서 적부심사를 합니다. 특정분야에 과연 신청자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적부심사를 모든 해당학과 교수가 참여해서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연구실적물을 평가를 합니다.

연구실적물을 평가를 해서 연구실적하고 교육경력을 따져서 가장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세 사람으로 압축을 합니다. 세 사람으로 압축된 다음에 세 사람을 모두 개별적으로 불러서 발표를 시킵니다.

발표를 시킬 때는 물론 자기가 발표한 내용에 관해서 토론을 하지만 모든 교수들이 질의 응답을 통해서 자질을 검증합니다.

자질을 검증하고 나서 연구발표실적을 30점 만점, 그리고 그 동안의 연구 및 교육경력을 60점 만점, 그래서 90점 만점의 점수를 세 사람에게 평가를 해서 그 다음에 마지막 10점

은 면접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면접점수는 해당 학과장, 그리고 해당 대학장, 그리고 교무처장이 참여를 하며 면접 주관은 총장이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60점, 30점, 10점, 전부 100점 만점 해서 상위자 두 사람을 선정을 해서 총장에게 일단 추천을 하면 총장은 상위자 두 사람 중에서 판단을 해서 한 사람을 선정한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임용재청을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재청이 들어온 후보자에 대해서 심사를 한 다음에 가부를 투표로 결정을 해서 그 결과를 총장에게 회부를 하면 총장이 임용절차를 밟습니다.

○趙養鎬 委員; 교무처장님 말씀 들으면 절차에 있어서 투명성도 있고, 또 객관성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할 수 없는데, 국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일곱 분의 교수가 전부 서울대 출신인데, 만약에 예를 들면 교수 한 분을 충원한다면 일곱 분의 교수분들이 추천을 해서 3배수가 되었던, 2배수가 되었던, 추천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일곱 분이 전부 서울대 출신인데 과연 서울대 외의 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이 현실적으로 과연 여기에다 이력서나 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차제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학문적으로 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분위기, 풍토, 학문간의 교수들간의 대학원생 간의 자유로운 학문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좀더 어느 특정대학 중심으로 교수진이 꾸며지는 것 보다는 여러 대학 출신 교수들이 충원되어서 자유롭게 서로간의 논쟁도 벌이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아요.

○敎務處長 安斗淳; 잘 알겠습니다.

그 취지를 살려서 앞으로 교무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이명원 씨는 한번, 시립대학교 교무처에서 이명원씨를 한번이라도 불러 본 적이 있어요?

○敎務處長 安斗淳; 없습니다.

○趙養鎬 委員; 왜 안 불러 보셨어요?

○敎務處長 安斗淳; 해당 학과 교수님들이 우선 중지를 모아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趙養鎬 委員;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명원 씨 학생은 거기에 반발해서 나와서 월간지에 계속해서 자기 견해를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월간지나 주간지에서는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시립대학교의 학문의 풍토에 대해서 꼬집는 거거든요, 비판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 측 나름대로 빠른 해결책을 찾으려면 이명원 씨도 한번 불러서 이명원 씨의 입장도 들어보고, 또 교수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서로 중재를 하든 조정을 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전혀 한번도 안 불렀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敎務處長 安斗淳; 교무처장이 학생들 하나 하나를 개별적으로 만날 시간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만.....

○趙養鎬 委員; 개별적인 학생이 아니고요.....

○敎務處長 安斗淳; 해당 대학 학장님 그리고 해당 학과에다가 여러 번 그런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교무처장님 보고 개별학생들을, 서울시립대학교생이 얼마나 많은데 다 만나라고 하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교수들간의 논쟁이 되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별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교무처장님도 교수분들의 얘기만 듣고 있는 것 아니에요?

○敎務處長 安斗淳; 지금 趙委員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저도 나름대로 봤습니다.

○趙養鎬 委員; 아니, 제가 자료를 보셨다, 안 보셨다, 얘기가 아니고 교무처장님이 교수들의 얘기만 일방적으로 듣지 마시고, 아까 또 교무처장께서 제가 일방적으로 이명원 씨 얘기를 인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일 수 있는데요. 저도 당연히 국문학과 교수님들 얘기도 들어봤으면 좋겠고, 교무처장님께서도 국문학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당사자인 이명원 씨 얘기도 좀 들어보고 서로 조정을 할 수 있는지, 화해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대책도 세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敎務處長 安斗淳; 알겠습니다.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모색이 아니라 다음 임시회 때는 나름대로 이명원 씨를 만나든, 또는 국문학과 교수들을 어떻게 조정을 하시든 어떤 대안이라든지 해결책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敎務處長 安斗淳; 알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보고서 20페이지를 보니까요, 우수교수 포상 25명, 1인당 2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우수교수를 선정을 하는 겁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연구분야는 기획발전처가 주관하는 위원회에서 하고.....

○趙養鎬 委員; 기획발전처요?

○敎務處長 安斗淳; 네.

○趙養鎬 委員; 거기에 누가누가 들어가 있어요?

○敎務處長 安斗淳; 위원은 각 분야별로, 우선 각 학문분야별

로 그리고 각 단과대학별로 대표자가 선출이 되어서 위원을 구성을 합니다.

연구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연구위원회에 누가 누가 들어가느냐고요.

○敎務處長 安斗淳; 각 단과대학별 교수들이 들어갑니다.

○趙養鎬 委員; 이것을 지금 올해 이렇게 우수교수를 포상하겠다는 계획인가요, 아니면 작년도에 포상했다는 겁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작년도에 1차로 했고.....

○趙養鎬 委員; 작년에 했어요?

○敎務處長 安斗淳; 네, 지금 나와 있는 데이터는 금년도에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趙養鎬 委員; 작년에 몇 분이나 우수교수 포상을 받았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15명입니다.

○趙養鎬 委員; 학과별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것은 학과별 안배가 아니고 교수 업적평가 결과를 놓고서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서 분야별로, 그러니까 인문, 사회, 자연, 공과계열, 예술대학 이렇게 분야별로 1명씩 선발을 하고 그리고 강의분야는 강의평가 결과를 기초로 해서 1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하겠는데 작년에 15분이 선정이 되셨다고 하는데 15분이 선정된 이유, 근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연구실적도 있을 테고 또는 논문집에, 여기 보니까 최다 기재교수 그런 식으로 어떤 근거가 있을 텐데 근거하고 15분의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務處長 安斗淳; 알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리고 연구교수 10분은 1인당 700만원씩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립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 중에서 연구교수를 선정한다는 것입니까? 기존의 정규교수 중에도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렇습니다.

○趙養鎬 委員; 이것은 전임강사 이상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렇습니다. 전임강사 이상이고 최근 5년 동안 이런 유사한 지원을 받지 않은 교수 중에서 선발을 하되 흔히 말하는 안식년 교수의 개념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이것 특별하게 선정기준은 없겠네요? 안식년 7년 되신 분들한테.....

○敎務處長 安斗淳; 7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10명을 선발을 합니다.

○趙養鎬 委員; 그리고 연구비를 중앙관리제에서 정착시킨다고 했는데 교수분들한테 연구비를 지원을 하게 되면 연구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어떤 감사라든가 또는 연구성과물에 대한 평가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렇습니다.

○趙養鎬 委員; 어떻게 주로 하고 있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우선 중앙관리제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연구 수탁을 받은 해당교수가 직접 모든 집행, 그러니까 지출정산을 전부 독자적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획발전처에서 전부를 집행하는 것, 정산하는 것을 중앙집중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런 체제로 이미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중앙관리제를 하기 전까지는 나름대로 연구비 지원에 대한 투명성은 모자랐다고 볼 수 있겠네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렇습니다.

○趙養鎬 委員;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다음 車星煥委員님 질의하세요.

○車星煥 委員; 수고하십니다.

아까 우리 趙養鎬委員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거기에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출신대학별 죽 보니까 혹시 시립대 출신은 얼마나 되죠?

○敎務處長 安斗淳; 말씀드린 대로 25명, 10%를 점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남녀비율은 보니까 남자가 239명이고 여자가 11명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성비문제 인데요?

○敎務處長 安斗淳; 저희들도 문제를 의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의사결정은 결국은 해당학과에서 이루어지고 해당학과에서는 결국 공개경쟁 원칙하에서 가장 성적 좋고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결국은 추천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본부나 총장이 여성을 가능하면 우대를 해 달라 하는 지침은 보냅니다만 구체적으로 이번에 여자분이 왔으니 여자분을 뽑아라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좋으니 어떤 특정인을 뽑아라 할 수는 없는 것이 특히 대학 교원 신규임용 절차의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직책이 뭐죠?

○敎務處長 安斗淳; 교무처장입니다.

○車星煥 委員; 교무처장이면 총장을 보좌해서 모든 학교문제를 실무적으로 총 책임지고 계신 분이죠?

○敎務處長 安斗淳; 혼자 하지는 않습니다만 교무 학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우리 나라에 지금 여성부가 생긴 것은 알고 계시죠?

○敎務處長 安斗淳; 알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어떤 취지로 생긴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라고 요약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서 학과로 미루지 마시고 학과에서는 대학본부에서 원칙을 정하면 거기에 준해서 학과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지 않겠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車星煥委員님 그 점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무처장이 전혀 학과 내의 교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총장도 방향 설정 정도는 할 수 있을까 그 이상은 전혀 안 됩니다.

○車星煥 委員; 학과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사를 하는가요? 학과장이 하게 되는가요?

○敎務處長 安斗淳; 교수 전원 합의제로 합니다.

○車星煥 委員; 만약에 사회복지학과다 그러면 지금 몇 분이죠?

○敎務處長 安斗淳; 지금 유감스럽게 세 분밖에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세 분이서 하게 되는가요?

○敎務處長 安斗淳; 장치를 마련해서 해당학과 교수 구성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외부 혹은 교내의 유사학과에서 적부심사위원 그리고 교수임용 절차에 따른 모든 과정을 같이 참여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네 사람 이상이어야 됩니다.

○車星煥 委員; 세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그 결정을 누가 내린 거죠?

○敎務處長 安斗淳; 우리 인사 내규로 정해 놓았습니다.

○車星煥 委員; 인사 내규를 정할 때 누가 정한 거죠?

○敎務處長 安斗淳; 학교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규정이죠.

○車星煥 委員; 그 규정을 누가 만드냐고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러면 다시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누가 만드냐고요? 어느 위원회인지 총장이 포함된 위원회인지 간단 간단하게 빨리 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敎務處長 安斗淳; 알겠습니다. 우선 법규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법규조정위원회에서 시한을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교무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교무위원회에서 모든 교무위원들이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가 확정이 되면 그것을 총장에게 결재를 받아서 공포를 합니다.

○車星煥 委員; 총장이 결재 안 하면 공포 안 되는 거죠?

○敎務處長 安斗淳;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법규조정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는가요?

○敎務處長 安斗淳; 법규조정위원회는 각 단과대학의 교학과장 그리고 법률 전문 교수님들 그리고 기획발전처 처장, 부처장 이렇게 들어갑니다.

○車星煥 委員; 누가 구성하냐고요?

- 敎務處長 安斗淳; 실질적으로는 기획발전처장이 합니다.
- 車星煥 委員; 기획발전처장이 이것을 구성해서 법규조정위원회를 몇 분으로 하는 거죠?
- 敎務處長 安斗淳;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10명 명단을 주시고요. 10명으로 구성되는데 여기에서 올린 것을 교무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거죠?
- 敎務處長 安斗淳; 네.
- 車星煥 委員; 교무위원회는 누가 위원장이 되는 거죠?
- 敎務處長 安斗淳; 총장이 위원장입니다.
- 車星煥 委員; 총장이 포함된 교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 확정되면 총장이 다시 결재를 하네요?
- 敎務處長 安斗淳; 그렇습니다.
-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서류상에 결재를 하게 된다 이거죠?
- 敎務處長 安斗淳; 네.
- 車星煥 委員; 그렇다고 볼 때 여기에서 결정된 것이 단과대학이나 그런 데로 인사관련 시행규칙이 내려갈 것 아닙니까?
- 그러면 단과대학에서는 여기에 맞게끔, 그래서 사회복지 같은 경우는 3명이 안 되고 4명 이상 해야 되기 때문에 외부인사로 하게끔 하고요.
- 그러니까 총장이 포함된 교무위원회나 법규조정위원회 이런 데에서 미리 여성을 더 한다든가 이런 모든 것을 결정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여기 있잖아요.
- 敎務處長 安斗淳; 지금 말씀하신 취지의 규정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렇겠죠.
- 車星煥 委員;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기를 마치 각 단과대학별로 거기에 모든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 敎務處長 安斗淳; 틀을 정해주는 것은 법규조정위원회나 교

무위원회 그리고 규정입니다만 신규 교수임용과정을 총장이
나 교무처장이 개입을 못 합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잠깐만요.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과대학별로 그 틀이 한번 짜지면 그 내에서는 총장
이나 외부인사도 개입을 못 하겠죠. 그러나 틀 짜는 것을 지
금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敎務處長 安斗淳; 틀이 지금 짜여 있습니다. 그것을 바꾸려
고 하면 또 다른 과정이 필요하겠죠.

○車星煥 委員; 틀이라는 것이 항상 시대 상황이나 학교 상황
에 맞게끔 고칠 수 있는 것이 틀 아납니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敎務處長 安斗淳; 물론 틀은 고칠 수 있습니다만 그 틀은
날마다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최소한의 상식
적인 선에서 바꿀 수밖에 없는 것이고 대학교에서의 상식이
라는 것은 교수의 인사에 관한 한은 해당 흔히 말하는
faculty에서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까지의 관례이고 현
실입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속기도 하고 있어요. 한글을 사용하시
고 다 알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세요.

○敎務處長 安斗淳; 알았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상식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어디 계모
임도 아니고 어디 단체에서 간담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학칙에 의해서 아니면 내규에 의해서 아니면 학사 어떤 규
칙에 의해서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상식을
가지고, 지금 대학이 따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울시 예산 가지고 지금 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물론 서울시.....

○車星煥 委員; 잠깐만요, 지금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왜 단과대학별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장이나 다른 보직교수나 이런 분들이 관여할 수 없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는 틀은 짜지면 외부에서 간섭하는 것은 월권이겠지만 그 틀을 만들어내는 권한이 법규조정위원회나 교무위원회 그리고 총장이 가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처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고 잘못됐다 싶으면 이것을 고치는 것이 정당한 학사운영을 위한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그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敎務處長 安斗淳; 알았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학교문제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 보니까 출신대학이 250명 중에서 서울대가 140명, 시립대는 25명으로 확인됐고, 연세대 18명, 한양대 15명, 고려대 15명, 성균관대 5명, 홍익대 5명, 외국대는 외국대학 출신을 말하는 것인가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순수하게 우리 나라 대학은 안 나오고, 그러면 외국인을 이야기하는 것인가요?

○敎務處長 安斗淳; 아닙니다. 외국인은 아니고 국내에서 대학을 안 나오고 외국에서 학부부터 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車星煥 委員; 외국인은 없나 보죠?

○敎務處長 安斗淳; 외국인은 전임이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 敎務處長 安斗淳 거명되지 않은 대학.
- 車星煥 委員; 거명되지 않은 대학은 기타로 취급해서 23명 정도 된다 이거죠?
- 敎務處長 安斗淳; 네, 그렇습니다.
- 車星煥 委員; 여기에서 지금 보직교수라면 어느 선까지 보직교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 敎務處長 安斗淳; 학과장까지를 보직교수라고 합니다.
- 車星煥 委員; 몇 분이죠?
- 좋아요. 그것은 확인하기로 하고, 지금 서울대교수가 140명인데, 물론 훌륭한 분이면 모셔야죠. 그런데 총장님이 서울대 공대 나오신 거죠?
- 敎務處長 安斗淳; 그렇습니다.
- 車星煥 委員; 그런 영향도 있습니까?
- 敎務處長 安斗淳; 그 영향은 없다고 봅니다.
- 왜냐 하면 총장이 되신 지가 지금 한 1년 반이 조금 넘었고, 그리고 또 총장이 현재 총장이 취임하고 나서 인사가 한번 있었습시다만 그때 서울대가 평소보다도 더 많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추세가 역전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 즉 시립대 출신이 더 들어왔고, 타 대학 출신이 더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 車星煥 委員; 보직교수는 확인 안 됩니까?
- 敎務處長 安斗淳; 겸임한 교수들이 있습니다만 서울시립대 학교의 보직수가 88개입니다.
- 車星煥 委員; 그러면 보직교수가 88명이라는 뜻이 되겠네요? 아, 겸임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88이지만 다를 수 있다 이거죠?
- 敎務處長 安斗淳;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56명이 보직교수

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서울대 출신은 몇 분인가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것은 통계를 안 내봤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것을 확인을 해서 주실래요?

○敎務處長 安斗淳;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분류 좀 하셔서요.....

그리고 예산을 좀 확인을 하겠는데요. 세출예산과 세입예산에서 일반회계가 세입예산이 줄어든 것이 어떤 것이 줄어든 거죠?

○敎務處長 安斗淳; 그 점에 대해서는 사무처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도록 양해 부탁드립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세요.

○事務處長 朴龍來; 事務處長 朴龍來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4쪽 세입예산 중에 일반회계 0.4%로 감소된 원인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작년 연말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에 세입조치되는 신입생의 등록금 입학금의 인상률 결정이 신학기 시작함과 동시에 1월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세입예산을 추계할 때 작년도 인상되지 않은 입학금 등록금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결산을 하게 되면 5% 인상된 금액으로 세입조치가 되기 때문에 초과달성이.....

○車星煥 委員; 몇 % 인상된다고요?

○事務處長 朴龍來; 5%입니다.

○車星煥 委員; 5%면 얼마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事務處長 朴龍來; 일반회계 전입 세입규모가 5% 인상된 분이 2억 4,900만원 정도가 세입조치 될 것입니다.

○車星煥 委員; 네, 알겠습니다.

교무위원회에 관련해서 7인 이내의, 대학인사위원회가 있죠?

○敎務處長 安斗淳; 네,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대학인사위원회가 지금 몇 명입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14명입니다.

○車星煥 委員; 14명 중에 교학처장, 학생처장, 기획발전처장, 각 대학원장, 이렇게 포함된 거죠?

○敎務處長 安斗淳;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 외에는 총장이 지명하는 7인 이내의 교원은.....

○敎務處長 安斗淳; 교무위원이 아닌 두 분이 인사위원으로 지금 위촉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법학과, 법률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법학과 교수 한 분하고, 또 공과계통에 대표로 들어온 분이 한 분 있고, 그래서 두 분입니다.

○車星煥 委員; 위원회가 어떻게 열립니까? 인사는 대학교수하고 사무처직원까지 하는가요?

○敎務處長 安斗淳; 아닙니다. 전혀 아니고, 교수들만 합니다.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들만 합니다.

○車星煥 委員; 지난해에는 몇 번이나 인사위원회가 열렸나요?

○敎務處長 安斗淳; 제가 횟수는 전부 기억을 못합니다만 10번 이상 11번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알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셔야 되나요?

정부에서 하는 위탁생이 몇 명입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學生處長 李宇泰입니다.

해외위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車星煥 委員; 아니, 국내위탁생이요.

○學生處長 李宇泰; 특수대학원 위탁받은 학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공무원으로서 위탁교육을 받는 학생.....

○車星煥 委員; 네, 시공무원 하고, 또 교육부장관 추천으로 정원 외 수학을 허가할 수 있는 위탁생이 있잖아요.

○學生處長 李宇泰; 교무처장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렇게 하세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 사안은 사실은 특수대학원 원장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대신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학교에 도시과학대학원이 있습니다. 도시과학대학원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20명의 인원을 선발을 해서 시립대학교에 위탁교육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20명은 도시과학대학원에서 해당 분야별로 교육을 받고 정규과정을 마치고, 물론 다른 학생처럼 똑같이 논문이 통과 되면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가 수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학교에 교육부장관이 위탁한 교육생은 없고, 단지 군위탁생이 해마다 입학절차를 특별전형절차를 밟아서 4명 내지 3명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일반학사로 오는 학생들은 없다, 이건가요?

○敎務處長 安斗淳;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특례입학은요?

○敎務處長 安斗淳; 특례입학이라는 것이, 잠깐만요.

○車星煥 委員; 일단 특례입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敎務處長 安斗淳; 특례입학은 우선 재외국민하고 외국인 특별전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특별히 시행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관한 특별전형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은 교육부에서 정원 외의 2% 범위 내에서 6년 이상 해외에 장기근속한 공무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사주재원의 자녀들에 관해서 별도의, 그러니까 일반입학생들과 다른 기준에 의해서 뽑도록 규정을 해 놨습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교는 작년에 99학년도가 되겠습니다만 99학년도 56명을 1차 선발을 했는데 등록을 한 것은 28명이고, 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보니까 매우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교원의 의사결정과정을 거쳐서 서울시립대학교는 금년도 입시부터 재외국민 및 외국인특별전형은 폐지를 했습니다.

이미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많은 부작용도 이미 예상이 되었고, 또 학생들이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수준에 맞는 학생들이 별로 오지도 않고, 뽑아봐도 학업성취도가 낮기 때문에 폐지를 했고, 말씀드린 대로 군위탁생은 2001학년도에 3명을 뽑았습니다. 이것은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서 일단 학교에 신청을 하면 거기도 추천된 위탁생 범위 내에서 자체경쟁을 해서 뽑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것은 위탁생 얘기잖아요, 특례입학.

○敎務處長 安斗淳; 특례입학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폐지를 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아까 위탁생은 군이고, 국가유공자가

지금 특례입학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것은 별도의 또 다른 기준에 의해서 뽑는데, 국가유공자는 각 학과별로 한 명씩 추천을 받아서 선발을 하되, 단지 최소 기준이 수능성적 상위 60%, 그러니까 100점 만점으로 하면 60점을 받아야 학업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辰永委員님 질의하세요.

○柳辰永 委員; 柳辰永委員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서 5페이지에 있는 학생 해외견문 지원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敎務處長 安斗淳; 學生處長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學生處長 李宇泰; 學生處長 李宇泰입니다.

○柳辰永 委員;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일부대학에서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柳辰永 委員; 일부 쪽에서요?

○學生處長 李宇泰; 네.

○柳辰永 委員; 이 프로그램이 시립대학교에서 운영해 온 것은 언제쯤 해 왔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와서 학생들의 어학실력을 향상시키고, 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새로이 마련된 제도입니다.

○柳辰永 委員; 그러면 과거에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무엇이며, 2001년도 대상자 선정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과거에 이런 유사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과거에 선정한 적이 없어서 올해 처음으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의 마련을 놓고 여러 가지로 지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는 어학실력을 우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柳辰永 委員; 해외견문을 마치고 돌아온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부터 한다고 했죠?

○學生處長 李宇泰; 네.

○柳辰永 委員; 그래서 앞으로 평가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만약에 해외견문을 갔다왔을 때, 예를 들면 보고서 작성이나 감상문, 기행문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학생들에게는 사전에 여행계획서를 받고 또 여행계획서대로 여행이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것을 교지와 홈페이지에 띄워서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고 후배들에게도 지침이 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柳辰永 委員; 효과적으로 되도록 해 주십시오.

○學生處長 李宇泰; 감사합니다.

○柳辰永 委員; 그러면 평가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인지, 축소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學生處長 李宇泰; 저희는 앞으로 모든 학생들이 다 이런 기

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개 1,700명의 입학생을 기준으로 1/4인 한 400여명이 갈 수 있다고 하면 졸업할 때까지 한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지만 일단 올해는 200명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고, 그리고 가는 방법에 있어서도 구미 쪽을 위주로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나가는 지역도 다양하고 가는 방법도 인솔에 의한 단체여행이라든지 하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견문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柳辰永 委員; 선정기준에 대해서는 혹 총학생회나 단과대학 간부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납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柳辰永 委員; 따라서 본위원은 급변하는 국제경제환경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해외견문을 넓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세계화시대에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들의 자질향상과 애교심을 높이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2억원의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학생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學生處長 李宇泰; 감사합니다.

○柳辰永 委員; 다음은 16페이지의 신규채용, 비전임교수 위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중복된 질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들의 출신대학교별 분포는 대충 어떻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다시 한 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柳辰永 委員; 교수와 학생 숫자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원래 교육부에서 평균 잡아서 25명 학생

중에 교수 1인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우리 학교는 교수 확보율이 현재 64.7%로 약 33명당 교수 1명이 되겠습니다.

○柳辰永 委員; 본인이 알기로는 특정대학교 출신 교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한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지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2000년 9월 30일에 교육부에서 교육공무원임용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 취지는 특정학과에 특정대학 출신교수가 2/3를 점하지 않도록 신규교수 채용시 지침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학교도 현재 교원임용규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능하면 빨리 개정을 해서 다음 교수 임용 때는 곧바로 적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柳辰永 委員; 시간강사 위축에 대해서 특별한 채용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특별한 채용기준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획일적인 채용기준을 적용해 놓으면 특정분야, 예를 들어서 예술분야라든지 체육분야 같은 실기 중심의 교육을 필요로 하는 데에서는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획일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만 일단 교육경력, 그리고 최소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지침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柳辰永 委員; 시간강사료는 얼마를 지급하고 있어요?

○敎務處長 安斗淳; 2만 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학교가 인상돼서 2만 7,500원입니다.

○柳辰永 委員; 시간강사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강사들한테 대우를 잘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敎務處長 安斗淳; 잘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 학교가 다른 학

교보다 월등히 많지는 않습니다만 평균 이상은 됩니다, 다행히 시간강사료는.

○柳辰永 委員; 시립대학교 예산이 엄청나게 방대한데 다른 데 절약하시고 그런 데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敎務處長 安斗淳; 알겠습니다.

○柳辰永 委員; 이상입니다.

○敎務處長 安斗淳;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朴柱雄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朴柱雄 委員; 사무처장님, 朴柱雄委員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처장님 학교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1년 됐습니다.

○朴柱雄 委員; 그러면 2000년도에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事務處長 朴龍來; 1999년 12월 29일자로 왔습니다.

○朴柱雄 委員; 그러면 처장님은 공사할 적에 안 계셨군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시립대 부근에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달에 몇 번 정도 배봉산을 아침에 찾습니다.

배봉산을 올라가면 주민들을 적게는 몇백 명에서 많게는 천 명 이상을 접촉하고 내려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시립대학교 하면 시에서 예산을 갖다 운영하는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아마 처장님도 아실 거예요.

교내 교통체계 개선공사 관련해서 화강석을 깎아서 도로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事務處長 朴龍來; 네, 알고 있습니다.

○朴柱雄 委員;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주민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거기를 저도 다니면서 실제 봐왔고 그런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런데 저한테 자료가 도착을 했는데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이런 식의 간단명료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 공사가 지금 보니까 강선건설 김성식 대표하고 계약 체결이 됐는데 그러면 계약서류 일체를 보내줘야죠.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데 처장님 교내에서는 차량이 시속 몇 km입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시속 10km로 알고 있습니다.

○朴柱雄 委員; 제가 알기에도 30km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교내 차량도로를 통행한 차량대수가 몇 대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 파악 아직 안 하셨어요?

○事務處長 朴龍來; 죄송합니다.

○朴柱雄 委員; 그러면 교내 차량 통행도로 그것이 외곽으로 뚫렸는데 한 바퀴 돌게 되어 있죠? 그것이 몇 km 구간입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2.5km로 알고 있습니다.

○朴柱雄 委員; 약 3km 가까이 되죠?

○事務處長 朴龍來; 네.

○朴柱雄 委員; 그래서 그것을 여기 보니까 공사금액이 근 5,000만원 돈으로 4,949만원인데 그 중에서도 화강석을 깎아서 도로에 설치한 것이 약 228개에 2,259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화강석 1개에 거의 한 개당 한 100만원 가까이 들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事務處長 朴龍來; 9만 8,000원입니다.

○朴柱雄 委員; 228개에 2,250만원인데 9만 8,000원이에요?
98만원 아니에요?

○事務處長 朴龍來; 9만 8,000원이 맞습니다.

○朴柱雄 委員; 그래서 2,300여 만원을 투자해서 도로를 깎아서 거기다 진열했는데 물론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일부 구간만 그것을 설치 했어요. 나머지 2.4km 가까이는 이것을 차선으로 도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같은 구간은 어째서 이것을 설치했는가 제 의심이 듭니다.

전 구간을 차선으로 도색을 해도 되는데 왜 하필 그 구간만 화강석을 깎아서 냈느냐 이거죠?

○事務處長 朴龍來; 그것이 주로 보도와 차도를 경계하는 석을 깔아놨는데 보도에 차들이 잘못 들어간다가 또는 보행인한테 차가 가다가 위험이 있는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해서 깎았으므로 알고 있습니다.

○朴柱雄 委員; 그러면 그것을 설치했을 때에 지금 처장님이 확인 안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 화강석을 깎아서 보도와 차도를 구분을 시켜놨는데 사람들이 도로를 통행할 때 꼭 인도로 구분해 놓은 그 길만 다닙니까? 아니죠?

○事務處長 朴龍來; 그렇지 않습니다.

○朴柱雄 委員; 오히려 넓은 쪽 차도로 아마 더 많이 다닐 거예요. 그러면 무용지물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이것은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게끔 해 놨어요.

제가 시민들이 그런 얘기를 할 적에 얼굴이 뜨거웠어요. 시의원 당신들이 이런 것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얼굴이 뜨거워서 할 얘기가 없었습니다.

큰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 그런 소소한 문제가 발견됐을 때 과연 학교에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 시민들이 의심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학 하면 교수님들이나 처장님이나 다 훌륭한 분들로 지식인들로 알고 있는데 시민들로부터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들어서 되겠는가?

○事務處長 朴龍來;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시기에 따라서 그 분야가 예산의 낭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학교에 전체 학문의 기관으로서 느끼는 수준 향상을 위해서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그런 목적으로 말하자면 시공을 했다 그런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朴柱雄 委員; 여기 보니까 물론 위험도 뒤에 따르고 면학분위기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돌 까는 것하고 학생들 면학분위기하고 무슨 관계가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돌을 꼭 깔아야 학생들 면학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입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면학분위기라는 표현이 꼭 맞는다고 저도 주장할 정확한 논리적인 근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학교에서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을 하되 가능하면 줄만 그어놔서 그런 것보다는 일정한 질서가 있도록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朴柱雄 委員; 처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가 5,000만원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돌 설치한 비용만 2,259만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서 인도를 공사를 해

봤으면 시민들로부터 이런 빈축도 안 사거니와 비용도 절감해서 이 돈 안 가지고도 다 한다 이것입니다. 차라리 인도를 만들어 버리지 왜 도로를 깎아서 해요. 그것은 말씀하시는 것이 이치에 맞지를 않습니다.

물론 처장님이 그 당시 책임자로 집행하신 사실은 없기 때문에 내가 처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시설과장 나왔어요?

○施設課長 趙民柱; 네, 시설과장입니다.

○朴柱雄 委員; 시설과장 그 당시에 있었어요?

○施設課長 趙民柱; 施設課長 趙民柱입니다.

본 공사 할 때 저도 학교에 근무하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본 사업은 종전에는 저희 학교에 와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일방 통행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차량하고 사람하고 혼재해서 뒤섞여 다녔습니다. 특히 중앙통로가 있었는데 그 중앙통로에 차량 통행을 방지하고 일방도로체계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

○朴柱雄 委員; 그 얘기는 됐어요.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과장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施設課長 趙民柱; 저는 근무하지 않았습니다.

○朴柱雄 委員; 그러면 들어가세요.

그리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라서 이것을 설치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어요.

교통영향평가 그 위원회가 대학 내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서울시 교통영향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事務處長 朴龍來; 외부 21세기관 신축과 관련해서 외부에서 용역을 받아서 교통영향평가를 했습니다.

○朴柱雄 委員; 그러면 영향평가위원회에서 외부가 됐든 내부가 됐든 거기에서 화강석을 깎아서 설치하라고 얘기가 나왔습니까?

○事務處長 朴龍來; 제가 알기에는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교통영향평가라는 것은 그냥 일방통행을 설치하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지 시공을 하는데 어떤 특정한 재질을 하라 그런 것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柱雄 委員; 여하튼 예산이 더 들어가든 덜 들어가든 차후 문제이고 우선 시립대학교 하면 교내에 엄청난 시민들이 출입을 왕래합니다, 가까이 배봉산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출입하면서 하나하나 보면서 전부 다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시민과 더불어 같이 하는 평생교육 운운하면서 시민들로부터 빈축을 사는 교육행정이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차도와 인도를 꼭 구분해서 설치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차라리 인도를 별도로 설치해서 보도블록 깔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리로 가지 차도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화강석 깔았을 적에 내가 유심히 봤어요. 인도쪽으로는 좁고 차도쪽은 넓으니까 넓은 쪽으로 사람들이 다 간다 말입니다.

그리고 구내에 차가 시속 10km, 20km 달리는데 무슨 얼어죽을 사고가 납니까?

이것은 일종의 핑계로밖에 볼 수가 없고 누가 봐도 예산 낭비했다는 지적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추후로는 조그마한 공사라 하더라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시민들로부터 민축을 사지 않는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事務處長 朴龍來; 잘 알았습니다.

○朴柱雄 委員; 그리고 아까 제가 21세기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것 하면서 이 자료를 상세하게 더 보내주세요.

○事務處長 朴龍來; 알겠습니다.

○朴柱雄 委員; 왜냐 하면 지금 업무보고 자리지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 지적하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事務處長 朴龍來;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金星煥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金星煥 委員; 수고 많으십니다.

시민대학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보겠습니다.

복잡한 것 아닙니다.

시민대학은 소위 학점은행제 같은 것을 운영하나요?

○市民大學長 崔良秀; 현재는 학점은행운영제를 금년에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자격증 강화하고, 학점은행제 도입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오다가 이번에 도입된 제도가 민간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는 강좌를 4개 분야에 설치를 해서 이번 제9기 시민강좌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학점은행제는 현재 교내에서 학점은행제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민대학 교육의 취지와 우리 학내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간의 기본적인 분위기,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강좌를 한 두 개 따서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이 되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 분위기 전체가 의지를 잃었습니다.

다만 행정학과, 법학과 정도 두 학과에서 지금 학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시여부는 1년 정도 더 진단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제가 시민대학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살펴볼지 못해서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시민대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일반교양강좌와 그 성격을 달리한다면 학점은행제와 같은 그런 메리트가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시민대학과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일반교양강좌하고 다른 것이 도대체 뭘까 생각해 보면 별로 다른 것을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따는 학점만으로 일반시민들이 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학점은행제라는 취지가 본인이 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 들어서 그것을 종합해서 무슨 학사자격증, 학사학위증을 준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市民大學長 崔良秀; 네, 그렇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가능하면 수강자들에게 그것을 수강함으로써 일정한 자부심도 갖고,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학사학위를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그것을 수강함으로써 해서 본인이 나중에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약간의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민대학에서 학점은행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市民大學長 崔良秀; 지금 金委員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신 것으로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번 국·공립대학

평생교육원장모임에 가서 현재 국립대학 25.6개 중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가운데 학점은행제를 본격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데가 이제 과반수 정도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관계를 2002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인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한 가지만 더 여쭙볼 텐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자치구분교가 하나 있던데 무슨 원칙 같은 것이 있습니까?

○市民大學長 崔良秀; 자치구분교는 그 동안 저희 시민대학 분교체제가 서울시 본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서 시립대학 본교가 전부 주관을 했습니다만 강동분교가 자치구분교로서 최초로 2001년 3월부터 개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분교 운영체제는 서울시와 저희 시립대학교가 교과과정 개발과 강사료 등을 지원을 해 주고, 다만 교육 시설관계는 강동구청이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소위 자치구하고 본청간의 공동부담으로 설치가 되었고, 이것이 2002년도에는 관악구청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각 자치구에서 그런 정도의 요건에 맞으면 다른 자치구에서 요구할 경우에 다 응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 인가요?

○市民大學長 崔良秀; 지금 현재 저도 시민대학을 맡은 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만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진단한 바로는 서울시 전체 자치구마다 시립대학이 본청과 연계해서 갑자기 확대해 나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자치구 가운데 강남이나 서초구청 같은 데는 자치구 스스로가 문화강좌를 오히려 대학을 압도

할 정도로 분야에 따라서는 이끌고 있고, 강북이나 외진 데 자치구에서는 강북분교라든지 강서분교가 있기 때문에 자치구 서너 개를 커버할 수 있는 범위에 현재 미치고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사정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내부적으로 원칙을 정해 두셔야, 예를 들면 시민대학이 어느 정도의 서울 시민에 대한 교육을 책임질 건지에 대한 계획과 현재 각 분교가 실제로 어느 구의 주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거기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런 자치구에서 요구할 경우에 응할 건지에 대한 내부방침이 있지 않으면 예컨대 개개의 구청에서 우리도 강동구처럼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시민대학의 자체발전계획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두셔야 그 기준을 가지고, 거기는 강서분교에서 전체적으로 한 다든지 아니면 해당 자치구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확대한다든지, 이러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인데,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市民大學長 崔良秀; 지금 말씀하신 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 시민대학에서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지금 지적하신 발전계획안을 성안해서 다음 회의 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자료에 보니까 중기발전계획을 또 늦추셨던데요. 지난해 첫 업무보고와 예산안 심의 때 중기발전계획을 제출하라고 여러 차례 실갱이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또 다시 늦추어졌네요?

○敎務處長 安斗淳; 그 점에 대해서는 기획발전부처장께서 답변드리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네,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이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企劃發展副處長입니다.

작년에 저희 내부적인 안은 만들었습니다만 작년에 교육부에서 교육발전5개년계획하고 그 다음에 국립대학발전계획, 이와 같은 것들이 성안이 되고 그에 따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그것이 작년 말에 12월 22일에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국립은 아닙니다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그러한 특성상 국립대학의 발전모델을 저희들이 참조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세운 계획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거기에 상충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누적되다 보니까 저희 계획도 지금 현재 그에 따라서 순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초에 국립대학발전계획을 교육부에서 각 대학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나름대로 심사해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그러한 과정을 거쳐서 국립대학발전계획 등이 확정이 최종 되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 계획을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최종 확정을 하고자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시립대도 국립대학발전계획안을 교육부에다 제출하나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金星煥 委員; 전으로부터 문제 제기했던 대목이지만 교육부에서는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립대학교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그렇죠?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국민의 세금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방자치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 구성원을 선출하는 자가 자기보다 높은, 즉 대통령이나 장관이 아니라 시민이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지 말고 아래를 쳐다보고 그에 따라서 일을 하라는 취지로 지방자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립대는 위만 쳐다보고 일을 하나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도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공립으로 분류가 되어서 함께 교육부에서 정한 정책에 따라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사립으로 분류가 되어서 또 국립하고는 별도로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金星煥 委員;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어디에는 사립으로 분류되고, 어디에는 국·공립대학교로 모아서 하고 그래요.

제가 보기에에는 시립대가 대단히 자의적으로 하고 있어요. 편한 대로 하고 있는 것이지,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느냐고요? 교육부에서 시립대더러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교육부에서 시립대더러 중·장기발전계획안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작년 11월에서 12월로 다시 늦추고, 올 6월 7월로 다시 늦추라고 했어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학이다 보니까 교육부의 일정한 체제라든지 정책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金星煥 委員; 제가 무시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눈을 어디에다 맞추고 있느냐, 이것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것도 감안해야 되지만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그렇게 할 바에는 다시금 국립대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봐도 서울시민이 400억씩 낼 이유가 없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보면.

모든 것을 다 국립대에서 운영하는 대로, 국립대에서 바꾸면, 국립대에서 계획이 확정되면, 그럴 바에는 시립대를 뭐 하러 운영합니까.

특별히 서울시립대를 운영할 필요가 없으니까 국가에서 예산 타서 국가에서 운영하게 하는 게 맞죠.

지난번에 총장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도 좋으니까 의회에 제출해라,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참고하겠다.

한 번이라도 자료 제출하신 적 있어요? 시민의 대표가 요구했는데 왜 제출 안 합니까?

국립대에서 이렇게 바꾸는 것이 그다지도 중요합니까?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여러 대학을…….

○金星煥 委員; 거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대학을 어떻게 하라는 지침이 한 구절이라도 있어요? 한 구절도 없잖아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모든 대학을 일정한 기능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기본적으로 모든 대학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하겠다는 의미입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니까 참조하시라고요. 참조하시라는 거지 그것 때문에 계획을 지금 거의 1년 이상 늦추는 것 아닙니

까? 이 계획에는 의회에 언제 보고하겠다는 내용조차 없는 것 아닙니까?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애초에 수립할 때 저희들이 실행 가능하려면 의회의 동의 내지는 승인이 필요하다, 의회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金星煥 委員; 지금 눈이 다르다니까요. 의회를 최종단계의 통과기구 정도로만 생각하시니까 그래요. 의회는 최종단계에서 통과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물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의회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죠.

그러나 지금 문제는 다르다고요. 서울시민이 아까 金判吉委員께서도 지적했지만 40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립대라도 대체 서울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자가 당연히 중장기발전계획 과정에서 서울시립대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참고할 권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교육부에서 시립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도 없이 국립대에 대한 발전계획을 세운 것을 가지고 그 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6개월간 계획을, 6개월도 아니고 7·8개월간 계획을 순연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내용으로만 보면?

그것이 무슨 시민의 대학이에요. 다시 국립대로 가지.

2·3월에 국립대학 발전계획이 분석되지 않잖아요, 이 계획에 따르더라도. 각 국립대학교가 교육부로 계획서를 내겠죠.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그것이 원래 3월로 되어 있었습니

다만 지난 주중에 다시 4월로 늦춰졌습니다.

○金星煥 委員; 지난번 예산안 심의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국립대학교 비국고 회계관리규정을 주장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거의 10여 년 이상 동안 무법상태로 기성회계를 운영해 왔잖아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준용할 근거는 없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니까 지금 시립대는 거의 무법상태로 기성회계를 운영해 오면서 시립대 발전계획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참고하지도 않은 체 위만 쳐다보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지금부터라도 정말로 서울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서울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을 아시고 그것에 따라서 시립대 발전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눈을 위로 돌리지 말고 아래로 돌리십시오.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잘 알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안이라도 좋다고 거듭 말씀드리니까 현재까지 계획을 어떻게 검토하셨는지 나중에 계획을 다 확정된 다음에 의회랑 씨름하지 마시고 같이 협의 하셔서 시립대의 발전계획을 같이 세우자고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이니까 너무 고집만 부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잘 알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기성회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기성회 직원이 42명인데 앞에서 질문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성회계 직원이 하는 역할이 구체적으로 뭐죠?

○事務處長 朴龍來; 사무처장입니다.

기성회 직원들의 역할은 각 단과대학이나 또는 본부에서 학사업무 또는 학생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직원들은 서울시 직원이기 때문에 3년마다 전보돼서 근무하는 반면에 기성회 직원들은 그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학교행정에 기여하는 바도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기성회계 운영을 위한 기성회계 직원은 몇 명이나 되나요?

○事務處長 朴龍來; 기성회계에서 지급되는 기성회 직원을 말씀하시는가요?

○金星煥 委員; 아니오, 기성회계 운영을 위해서 각종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기성회 업무를 위해서만 운영되고 있는 기성회 직원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따로 없어요?

○事務處長 朴龍來; 네, 없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기성회계 운영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하나요? 일반 서식이나 혹은 장부 정리나 이런 것은? 그렇게 되나요?

○事務處長 朴龍來; 집행이라든가 회계정리는 서울시 직원들이 하고 회계의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구는 기성회 이사회입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등록금과 예산안, 기성회비 인상안과 예산안을 편성해 주면 총장에게 집행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총장의 지휘를 받는 일반직들이 집행을 하고 회계정리를 합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예컨대 사무처에서 한쪽에는 일반회계장부를 가지고 있고 한쪽에는 기성회 장부를 가지고 한 사람이 두 개를 같이 한다 이런 건가요?

○事務處長 朴龍來; 그렇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면 이 두 개를 총괄하는 장부가 혹시 따

로 있나요?

○事務處長 朴龍來; 회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金星煥 委員; 지난번 제가 예산안 심의 때 확인했습니다만 쓰레기봉투 값이 양쪽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립대에서 올해 쓰레기봉투 값은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따로 따로 세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올해 필요한 쓰레기봉투 비용은 대충 이 정도다 이렇게 하는 총괄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어요?

○事務處長 朴龍來; 다른 일반적인 분야에는 큰 프로젝트인 경우, 큰 사업인 경우에는 전체 계획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현재 기성회계를 운영하는 목적이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재원이 부족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성회계에서 보조적으로 일반회계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을 대신 지원하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金星煥 委員; 얘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료 요구로 대신 할게요.

시립대 기성회계 약관이 있을 텐데 그 약관을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이사회 의결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울시 공무원하고 기성회 직원들 업무분장표 같은 것이 있을 텐데 업무분장 편람 같은 거요. 이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립대 공문 수발대장 같은 것 있죠?

○事務處長 朴龍來; 문서 수발대장.

○金星煥 委員; 그것 사본을 주시거나 아니면 원본을 가져오

시면 제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자료 요구를 따로 할 테니까 문서 수발대장을 2000년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일반회계와 기성회계에 목이 같은 내용, 그러니까 같은 목이 각각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왜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들어서 각각 총액이 얼마나 편성이 됐는지,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서 쓰레기봉투 값이 일반회계 1,000만원이고 기성회계 5,000만원이면 왜 그렇게 편성됐는지를 부기를 달아서 항목하고 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 의는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車星煥委員님 질의하시겠습니까?

○車星煥 委員; 네, 조기졸업한 학생이 있나요? 올해의 경우 조기졸업생이 있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교무처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칙상은 조기졸업이 가능합니다만 지금 현재 매 학기당 수강신청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학점까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실질적으로 조기 졸업자가 안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학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전 학기 평균 성적이 3.5이상이 될 때는 추가로 3학점을 더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음으로 해서 앞으로는 조기졸업생이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까지는 없다 이거죠?

○敎務處長 安斗淳; 네.

○車星煥 委員; 그런데 작년에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다고 했는데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그 점에 대해서는 학생처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學生處長 李宇泰; 學生處長 李宇泰입니다.

지난번 본관 점거시에 학생들의 1차적인 요구는 등록금 인상분을 환불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學生處長 李宇泰; 결국 18일 이후에 학생들의 세력이 많이 약화된 틈을 타서 교직원들이 들어가서 본관을 점거함으로 인해서 학생들을 본관에서 내쫓게 되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며칠간 그랬나요?

○學生處長 李宇泰; 18일 동안이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거기에 관련해서 학생에 대한 처벌이 있었나요?

○學生處長 李宇泰; 그렇습니다. 그 점거사태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학생들은 학생의 신분을 가지지 않은 제적생, 퇴학생들, 그리고 일부 외부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동자라고 짐작되는 6명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해서 지금 청량리경찰서에서 수배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참가학생들 가운데에서는 경중을 참작해서 6명에 대해서는 무기정학 그리고 6명에 대해서는 유기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에서 징계한 학생은 모두 12명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 이후에 움직임은 없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그 이후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이번에 새로이 당선된 2001학년도를 맡을 총학생회 간부진들이 작년과는 좀 성향이 다른 학생들이기 때문에 작년의 학생들이 다시 일으킬 염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작년엔 인상분이 몇 %였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작년의 경우에는 수업료는 동결이 되었고 기성회비의 경우에는 재학생이 평균 9.5%, 신입생들은 19.5%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것 관련해서 환불해 달라고 한 것입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기성회비 사용내역을 99, 2000년도 이렇게 사용내역을 주십시오.

○學生處長 李宇泰; 그것은 사무처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리고 한 가지 확인을 하겠는데 누가 답변하셔야 되는가요?

수강금지 교과목이 있죠?

○敎務處長 安斗淳; 네.

○車星煥 委員; 이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무슨 내용 때문에?

○敎務處長 安斗淳; 수강금지과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를 들어서 경제학과 학생이 한국경제의 이해라는 것을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타과 학생들의 일반 경제상식을 넓혀주기 위해서 설강한 과목으로 경제학과 전공학생들은 그 과목은 쉽게 아무 부담 없이 학점을 딸 수 있고 다른 학생들하고

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런 과목은 수강을 금지시킵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편입생이든지 재입학한 학생들의 경우 이미 특정과목을 수강을 해서 학점을 따냈는데 그 학점을 지우지 않고 동일한 과목을 또 수강을 해서 학점을 취득을 하면 그것은 이중계산이 되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 주는 사례가 있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것은 학점을 인정을 안 해 주는 과목이죠?

○敎務處長 安斗淳; 네, 그렇습니다.

○車星煥 委員; 수강금지, 본인이 들어도 학점을 안 주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車星煥委員 알겠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敎務處長 安斗淳; 박물관장이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박물관 개관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83년에 개관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요?

일단 제가 질의를 그렇게 해서 그러는데요, 박물관은 84년 9월 4일 개관되었네요, 84년도고.

○敎務處長 安斗淳;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기간 그때 같이 참여를 해서 83년으로 기억합니다. 죄송합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몇 점이 있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學生處長이 전임 박물관장을 겸해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학생처장님께 좀 부탁을......

○學生處長 李宇泰; 유물이 작년에도 또 추가로 구입된 것이 있어서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약 1만 5,000점 이상의 유물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총 평가액을 낸 것이 있나요?

○學生處長 李宇泰; 평가액을 낸 것은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박물관 소관은 누가 소관이신가요?

○敎務處長 安斗淳; 박물관장이 따로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니, 박물관을 기구표상......

○敎務處長 安斗淳; 총장 직속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지금 박물관장님이 안 계셔서 얘기가 안 되네요.

왜 박물관장님이 참석을 오늘 안 하신 거죠?

○敎務處長 安斗淳;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제한하는 의미에서 아마 참석하지 말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번에 꼭 참석해서 질의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오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혹시 박물관에 있는 유물 중에 보험에 가입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學生處長 李宇泰; 유물 가운데서 국가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소속은 국가로 되어 있고 저희가 단지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캡스라든지 그러한 방법시설은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가단위의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의 유물에 대해서 보험에 가입한 적은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다음에 박물관 관련해서는 관장님이 계신 데

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아까 질의가 나왔었는데, 작은 것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社會福祉館長입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탁로소를 활용하고 계시는 노인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하루에 한 20분쯤 되십니다.

○車星煥 委員; 그분들 중에서 노인대학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지금 탁로소라는 정식명칭은 노인주간보호센터인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병약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노인대학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거의 보호상태라 이거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네, 복지관에서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車星煥 委員; 네?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복지관에서 그것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것을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다.

○車星煥 委員; 하시겠다면, 원하시면 열어 주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복지관이 97년도에 개관해서 장애인 부업알선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 사례가 있습니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장애인 취업알선이라기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생산장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참여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아서 지금 현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만을 특정대상으로 해서 취업관련된 사업은 없습니다.

○車星煥 委員; 이용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되나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프로그램별로 굉장히 다양한데요. 정확한 통계는 제가 지금 현재 갖고 있지 않습니다.

○車星煥 委員; 정확한 통계는 안 가지고 계시고, 그러면 장애인에 대해서 부업 알선한 사례가 없고, 지금은 생산장도 운영하지 않으신다, 이거네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아니오. 장애인을 위해서 취업알선한 경험이 없다는 것은 아니고, 그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있었는지도 모르시겠나?

지금 복지관에서는 혼자 나와 계신가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네.

○車星煥 委員; 다음부터는 같이 나오셔야 되겠네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다음부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 사회복지관 주요사업에 장애인 부업알선이 주요사업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아십니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그것이 주요사업 전체 사업목표라기 보다는 세부사업 중의 하나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중요한 목표로 두고 하고 있습니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역주민들의 자립기반 향상과 지역주민들의 가정기능 강화, 그런 사업들이

주요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한 대상으로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車星煥 委員; 자립기반 향상으로 실적을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이.미용기술이라든지 제과·제빵기술 훈련이라든지, 무슨 요리기술이라든지, PC 컴퓨터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쪽은 재가복지봉사센터, 그 쪽은 가정복지사업 쪽이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그렇죠.

○車星煥 委員; 그러면 장애인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있죠? 생산장 그것 말고라도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지금 이것은 사업내용별로 5개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고, 대상별로 하면 장애인들이 가족복지라든지, 재가복지라든지, 지역복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5가지는 뭘 의미하는 거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어린이집과 노인주간보호까지 다 포함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이라고 하면 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기관에 와서 물리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기관에 와서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車星煥 委員; 할 수 있다, 이거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할 때 장애인이 여러 프로그램에 걸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기준이 다른 것이죠.

○車星煥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1과와 복지2과가 있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그렇지 않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말로 기구개편을 했습니다.

○車星煥 委員; 아, 작년말로 그런가요?

이것은 2000년도 시립대학교요람이라는 책자를 제가 보면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크게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은 3개로 가족복지와 재가복지, 지역복지사업팀으로 나누고, 그 외에 어린이집과 노인주간보호센터, 그래서 크게 5개 기구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니까 지금 課라는 자체는 없어졌습니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네.

○車星煥 委員; 그러면 가족복지, 재가복지, 지역복지, 또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복지1과, 복지2과, 이렇게 구분되어 있던 것을.....

○車星煥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장애인복지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는 5개가 아니겠죠, 어린이집 빼고 나머지 4개에 두루 걸쳐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도 마찬가지로요. 노인들도 4개에 다양하게 걸쳐서 집에 있는 분들은 재가복지사업을 받을 것이고, 여기 오셔서 주간보호센터에서 서비스를 받는 분도 계시고 이

런 식으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劉俊相 委員長, 趙養鎬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趙養鎬; 그러면 장애인들 중에는 몇 %나 되나요? 가족복지사업, 재가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에서 주로 장애인들은 몇 % 정도나 돼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그런 자료는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委員長代理 趙養鎬; 아니, 없을 거예요, 없어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뽑아보면 나올 수도 있겠죠.

프로그램이 단위사업에 한 70여 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집에서 하는 것도 있고, 기관에 와서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낼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趙養鎬; 지금 현재 안 갖고 계신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장애인하고 일반인들과의 비율이.....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서비스대상자 중에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委員長代理 趙養鎬; 한번 찾아보세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관장님, 오늘은 뭘 가지고 나오셨어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저도 나름대로 오느라고 준비는 해 가지고 왔는데 적절한 대답을 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공부한 쪽으로 질문을 해 주시면 더 잘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복지기관에서 장애인은 중요한 서비스대상이.....

○車星煥 委員; 잠깐요.

지금 사회복지관 2001년도 예산이 얼마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그것은 제가 준비를 해 왔습니다.

2001년도가 총 5억 8,988만원입니다.

○車星煥 委員; 5억 8,000이라고 하고, 여기에서 예산상 가장 주안점을 두는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예산상으로는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가족복지하고 지역복지가 거의 비슷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시립대학에서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 어디에 목표를 두고 설치한 거죠?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우리 대학에서 목표를 세운다기보다는 社會福祉事業法에 사회복지관의 목표가 규정되어 있고, 또 세부적으로는 서울特別市社會福祉館運營指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운영지침에 가족복지, 지역복지, 그 다음에 재가노인들이나 장애인을 위한 재가노인복지, 이런 것들이 사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이것 관련해서 논의를 다음에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네요.

상당히 서로 질의와 답변이 초점이 흐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좀더 자료를 가지고 나중에.....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미리미리 어떤 자료가 필요하다 말씀

해 주시면 저희가 성의껏 자료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잘 알겠습니다.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趙養鎬; 아니, 지금 복지관장님께서 답변하시는 태도가 제가 듣기는 굉장히 불성실한 답변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질의를 하는데 미리 답변하는 사람에게 통보를 해서 자료를 갖고 온다, 그런 말씀은 조금 무례한 발언인 것 같고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趙養鎬; 사회복지관의 관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한 달 정도 되셨으니까 아직 시간이 짧기는 했지만 좀더 업무과약을 확실히 해 오시고, 다음 상임위원회에 오실 때는 답변을 준비하시는 직원들 같이 오셔서 정확성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노력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저희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거기를 겸임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직원은 거기에 몇 분인가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저희가 총 20명 정도 됩니다.

○委員長代理 趙養鎬; '20명 정도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총 몇 명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총 18명입니다.

○委員長代理 趙養鎬; 그렇게 자료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될 것이고, '20명이 정도 됩니다' 하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車星煥 委員; 운영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까?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네,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거기는 몇 명입니까?
-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車星煥 委員; 운영자문위원 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전문위원회가 있습니까?
- 敎務處長 安斗淳; 전문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언제 없어졌습니까?
- 敎務處長 安斗淳; 제가 기구표를 보고서 최근에 파악한 바로는 전문위원회의 설치기구표를 못 봤습니다.
- 車星煥 委員; 지금 여기 기구표에는 있는데요?
- 敎務處長 安斗淳; 아마 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규정에는 명시가 되어 있고, 설치운영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 車星煥 委員; 확실해요?
- 敎務處長 安斗淳; 100% 자신은 없습니다.
그 점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車星煥 委員; 맞춤교육 실시라는 것이 있었죠? 그것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 敎務處長 安斗淳; 지금 하고 있습니다.
- 車星煥 委員; 이것 실적이 어떻습니까?
- 敎務處長 安斗淳;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춤교육이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지적하셨다시피 서울시립대학교 학생들의 교육을 서울시정 발전 기여에 연계시키고자 해서 서울시하고 시립대학이 협의해서 2000년도부터 처음으로 실시를 시작했습니다.

즉, 서울시에서 5개 분야 교통분야, 지적분야, 도시계획분야, 시설물 안전분야, 환경위생분야 등 5개 분야에 어떠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요구된다 하는 것을 서울시가 지정을 해주면 그 지정된 요구에 부합하도록 서울시립대학교에서는 교과과정을 4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교과과정을 편성을 해서 그 학생들에게 집중적인 전문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맞춤형교육이다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도 하고 있겠네요?

○敎務處長 安斗淳;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도 40명입니까? 탈락자 없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현재 40명입니다.

○車星煥 委員; 이것이 끝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敎務處長 安斗淳; 끝나서 자동적으로 서울시에서 채용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는 나름대로의 임용절차과정을 거쳐서 즉, 그 동안의 학업성적하고 테스트과정을 거쳐서 특별채용을 하겠다 하는 의사를 표시해 왔습니다.

○車星煥 委員; 어디서 지금 소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敎務處長 安斗淳; 각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분야는 건도조학부가 있는데 거기에 교통 전공팀들이, 그리고 지적분야는 지적정보학과가 있습니다.

또 도시계획분야는 도시계획 전공에서 하고 있고 시설물 안전은 주로 토목공학과가 주축이 되고 환경위생분야는 환경공학부가 주축이 돼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는데 연구소 관련해서 각종 운영위원회가 있죠?

○敎務處長 安斗淳; 연구소에 관해서는 기획발전부처장이 답

변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車星煥 委員; 네.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기획발전부처장입니다.

○車星煥 委員; 연구소 관련해서 자문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죠? 운영위원회만 있는 데도 있고 자문위원회만 있는 데도 있고 그러네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아마 연구소마다 규정에.....

○車星煥 委員; 각종 위원회가 있네요? 정보기술연구소 같은 경우는 연구관리위원회라고 별도로 있고 산업경영연구소는 운영위원회 이런 식으로요?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네.

○車星煥 委員; 여기 각 위원회의 명단을 주십시오.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부설연구소에 있는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요?

○車星煥 委員; 네, 그리고 실제 연구중이고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결과물이 안 나왔어도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 제목과 연구목표를 수합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추진중인 사업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죠? 이미 끝난 것은 제외하고요?

○車星煥 委員; 이미 끝난 것도 제목을 달아서 주십시오.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언제 것부터 드리면 되겠습니까?

○車星煥 委員; 제목 정도니까 연구소 설립 이후에 몇 가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너무 많습니까?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車星煥 委員; 너무 많으면 작년 이후.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네, 2000년 1월 1일 이후로 하겠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동아리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는데 지금 동아리 등록 및 운영규정에 의하면 제6조에 동아리 대표는 5학기 이상 등록한 학생 중 비제로 학점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하며 소속회원이 호선하고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학점에 혹시 걸려서 문제가 생긴 경우는 없었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동아리연합회의 간부들 가운데에서는 일정 숫자를 선발해서 총학장학금을 지급하는데 거기의 경우에는 학점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아리가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운영이 될 경우에 동아리 회장이 학점이 조금 모자란다고 해서 그 동아리 자체를 허락하지 않거나 하는 일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학교지도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학생지도위원회는 지도위원장 외에 총장이 임명하는 교수로서 임명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지도위원장은 누구신가요?

○學生處長 李宇泰; 학생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학생처장은 본인이 학생처장 아닙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네, 접니다.

○車星煥 委員; 그런데 본인이 위원장인지 모르십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조금 전에 학사지도위원회와 혼동을 했습니다.

학사지도위원회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재·입학을 주로 관장하는 것으로써 영문과 임상순 선생이 위원장이고

학생지도위원회는 학생처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명칭이 학교지도위원회예요?

○學生處長 李宇泰; 네, 학교지도위원회입니다.

○車星煥 委員;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학교지도위원회는 현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지도위원장은 처장이 하시고 나머지 6명은 총장이 임명합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학생처장이 추천하여서 총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별다른 사안이 없으면 부처장이 간사를 맡게 되고 단대 학장님들께서 위원을 맡아주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車星煥 委員; 학교지도위원회가 열린 적이 없었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제가 처장에 임명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언제 임명되셨죠?

○學生處長 李宇泰; 작년 2월 1일자에 임명이 됐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러면 작년에 학교 본관 점거할 때는 동아리 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까?

○學生處長 李宇泰; 네, 동아리는 별다른 관련이 없었습니다.

○車星煥 委員; 그래서 열 이유가 없었다 이거죠?

○學生處長 李宇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趙養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상으로 2001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립대학교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업무보고과정에서 위원들께서 지적하고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오늘 상임위 중에 일부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 또 정확치 못한 답변을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엄중히 지적을 드리면서 다시는 불성실한 답변이나 정확치 못한 답변을 하시는 이런 사태가 다시 재발될 때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다음 회의는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국제협력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7時 29分 散會)

○出席委員

劉俊相 趙養鎬 吉基演 金成奎

金星煥 金判吉 盧永奭 劉大運

柳辰永 李康珍 李東秦 車星煥

朴柱雄 李聲九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서울市立大學校

總長 李棟

教務處長 安斗淳

學生處長 李宇泰

企劃發展副處長 姜東汜

事務處長 朴龍來

市民大學長 崔良秀

社會福祉館長 金蓮玉

施設課長 趙民柱